The K

Monthly Magazine
January 2018
Vol.**05**

CONTENTS

2018 JANUARY **VOL.05**

SPECIAL THEME
다짐

4
여는 글
초심으로 여는 새해 '다짐'

6
Infographic
2018, 우리의 다짐

8
Essay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자!
김성현 서울 한신초 교사

10
Interview 1
음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응원합니다
임명숙 강원 봉평중 음악교사

14
Interview 2
이토록 즐거운 공부, 우리는 좋아서 한다
조중기 종로산업정보학교·서울다솜관광고·
오디세이학교 교장

18
아름다운 동행
제자의 시작,
스승의 마지막을 위해 길을 나서다
서경애 울산 상안초 교사

24
먼 나라 교육 편지
무지개 나라 선생님의 몽골 탐방기
이병문 충남 홍주초 교사

28
아는 공간
시인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담은 곳 '윤동주문학관'

30
트렌드 Go Go
2018 편의점·쇼핑몰을 관통할 키워드 3선

32
행복 만들기
사진 속에 우정과 행복을 담아
울산대학교병원 사진동호회 '포커스'

36
네오필리아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선물
수공예품 공방 5곳

38
브랜뉴 여행
화려한 미식의 향연
일본 '규슈'로 떠나는 맛 기행

44
추천 핫플레이스
강원 대관령초 주변 추천 명소

46
문화 캘린더
이달의 공연, 전시

48
재테크 팩토리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2018년
간접투자(펀드)에 대해 알아보자

50
The-K Focus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특별한 하루
제4회 행복나눔 콘서트

54
The-K Family
겨울에 즐기는 낭만, 온천을 맛보다 'The-K호텔경주'

58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1
독자 이벤트
1월 즉석 당첨 이벤트

62
The-K Info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요 서비스 안내

The-K
VOL.05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문용린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60)
www.ktcu.or.kr
발행일 2018년 1월 1일

편집
기자 이미진 leemj@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정은주 이유선
교열 박혜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seo@swadcom.co.kr
디자이너 김진이 kj2@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황원 장병국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초심으로 여는 새해, 다짐

2018년 무술년 새해, 새 아침이 힘차게 밝았습니다.
새해, 연초가 반갑고도 조금은 낯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분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난 1년을 함께한 '2017'이라는 수 대신 끝자리가 '8'로 바뀐 네 자릿수에 대한 어색함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우리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함께 <The-K 매거진>을 창간한 의미 있는 한 해였지요.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짐'.
독자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많은 사람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잊고 지내온 계획을 다시 꺼내기도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도 하지요. 이를 살펴보면, 공통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족', '고향', '건강', '성공', '행복' 등….

저마다 속한 조직에 따라, 또 성별과 연령에 따라 역할은 다르지만 분명 한 축을 이루는 새해 다짐이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 그 다짐을 발견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올해는 모두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고향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들 합니다. 맘속에서나마 항상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다시 힘차게 달려 나갈 2018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듯, 이젠 우리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때 입니다.

한 해는 또 넘어가지만, 새로운 희망과 다짐을 세기기 좋은 날입니다.

당신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2018, 우리의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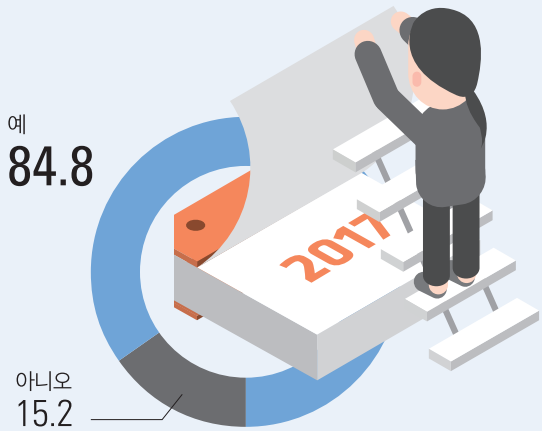
2018년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1월이 되면 수많은 다짐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만큼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우리 회원들은 과연 어떤 다짐을 했을지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2017년 12월 1일 ~ 5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3830명

성별	남성	33.0%
	여성	67.0%
연령	20대	11.8%
	30대	36.4%
	40대	27.9%
	50대	17.3%
	60대 이상	6.6%
직업	교원	60.2%
	비교원	39.8%
근무하는 직장	유치원	2.1%
	초등학교	30.2%
	중학교	13.3%
	고등학교	14.2%
	대학교·병원	25.5%
	교육 연수·행정·연구기관	5.5%
	기타	9.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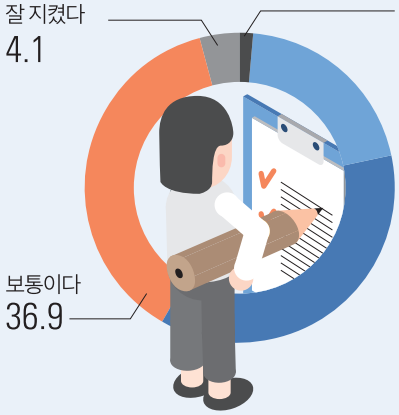
Q. 2017년 신년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84.8

아니오 15.2

Q. 2017년 신년 계획을 얼마나 잘 지키셨습니까?



매우 잘 지켰다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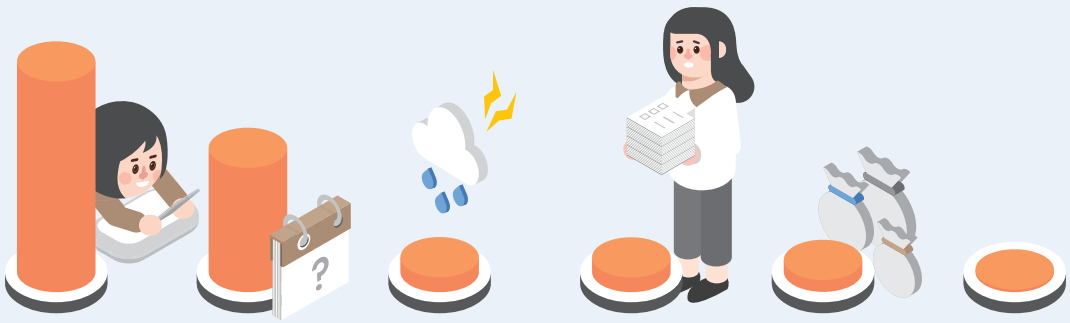
전혀 지키지 못했다 1.6

별로 지키지 못했다 20.1

보통이다 36.9

비교적 잘 지켰다 37.3

Q. 일반적으로 새해 계획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지가 처음 같지 않아서 44.4

구체적 실천 계획을 짜지 않아서 29.1

주변 사람들과 상황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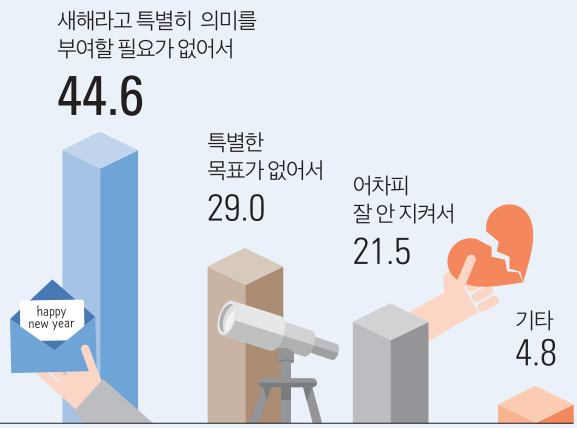
한 번에 너무 많은 계획을 다짐해서 8.4

처음부터 지키기 어려운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7.7

기타 1.8

Q. 새해 계획을 세웠거나 세울 예정입니까?

Q.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 2018년 이루고 싶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운동	52.9	47.6	59.3	62.5	70.6
2. 여행	38.1	39.4	50.7	60.1	72.6
3. 저축·재테크	42.9	40.6	35.6	29.5	18.3
4. 취미생활	29.2	21.8	25.9	41.1	57.1
5. 어학·자격증 등 공부	25.0	28.4	28.2	22.5	12.7
6.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15.3	25.7	26.6	22.4	25.8

기타 보기 다이어트, 결혼, 효도, 승진, 연애, 금주, 금연, 이직

Q. 귀하의 2018년 새해 소망과 각오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위 우공이산(愚公移山)
꾸준하게 열심히 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길

34.2

2위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이 있어 마침내 이룰 수 있길

16.8

3위 일취월장(日就月將)
날로 달로 발전하거나 성장하길

10.6

4위 전도유망(前途有望)
앞으로 잘 될 희망이 있길
8.6

5위 호연지기(浩然之氣)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않는 기상을 갖길
7.9

기타 보기 고진감래(苦盡甘來) 7.0, 승승장구(乘勝長驅) 7.0, 환골탈태(換骨奪胎) 3.3, 맹귀부목(盲龜浮木) 2.7, 개세지재(蓋世之才) 1.5, 기타 0.3

글 김성현 (서울 한신초 교사)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자!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며 '올해는 꼭 OOO을(를) 이루겠다'라는 다짐을 한다. 그런데 계획하고 목표한 것이 마음처럼 쉽게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다짐이 그야말로 다짐에 그치게 되면 그조차 하지 않게 된다.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는 소망만 있고, 건설적인 목표와 다짐은 잊기도 한다. 다짐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다. 삶의 원동력이자 나를 깨우는 큰 힘이다. 우리에게 다짐이 없다면 그냥 살아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닭 속의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시골의 한 농부가 우연히 길에서 알 하나를 발견하고 이를 닭의 둥지에 넣어 두었다. 실제 그 알은 독수리 알이었다. 독수리 알은 어미 닭의 보살핌 끝에 부화한 뒤 병아리들과 함께 들판에 떨어진 곡식을 쪼아 먹고 꼬꼬댁 소리를 내며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 높이 독수리 한 마리가 비상하는 모습을 본 독수리 새끼는 어미 닭에게 묻는다.

"엄마, 저 새는 무슨 새인가요?"

"음, 저 새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지. 우리 같은 닭과는 완전히 다르단다."

"아, 그렇구나!"

독수리 새끼는 하늘을 가르며 비행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살았다.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독수리 새끼는 그렇게 닭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다.

세상의 흐름 속에 내가 어떤 잠재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가슴속에는 잠든 거인이 있다. 이 거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힘이 있다. 그러나 거인을 잠에서 깨우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거인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다짐'이다.

'다짐'만이 잠든 거인을 깨울 수 있다. 반복되는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져 또는 여러 가지 업무에 부딪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진정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상상으로 각자의 능력과 열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잠든 거인을 반드시 깨워야 한다.

다짐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다.
삶의 원동력이자
나를 깨우는 큰 힘이다.
우리에게 다짐이 없다면
그냥 살아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솔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보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 이야기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새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다는 솔개는 약 70년 동안 산다고 한다. 그런데 솔개는 40년쯤 살았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자기 혁신을 통해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하든, 죽을 날만 기다리며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든.
자기 혁신을 선택한 솔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 둥지를 만들고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다. 먼저, 부리를 바위에 부딪쳐 깨뜨린다. 아픔을 견디고 생긴 상처에서는 점차 새 부리가 돋아난다. 그러고는 새 부리로 무뎌진 발톱을 하나씩 뽑아낸다. 인고의 시간을 견뎌 새 발톱이 자라나면 이번엔 또 두꺼운 깃털을 뽑아낸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아픔과 인내에 순응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솔개는 멀리 그리고 높이 비상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새롭게 태어난다. 자신을 세월의 흐름 속에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쇄신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느냐는 오직 본인의 선택인 것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제임스 보트킨(James W. Botkin)은 '15:4 법칙'을 제시한다. 15:4 법칙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면, 나중에 4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 일을 미리 생각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하루 업무를 조직화한 사람은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보다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한다. 때문에 내일 하루를 미리 고민해 보면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 내일은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을 선물할지 고민하고, 수업 방법을 약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하여금 새로운 흥미를 이끌어내길 소망한다.

카네기멜론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였던 랜디 포시(Randolph Pausch)는 췌장암 말기 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산다. 그는 저서 <마지막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는데 인생을 허비한다. 그 에너지의 10분의 1만 문제 해결에 쏟아도 일이 얼마나 수월하게 풀리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2018년을 새로 시작하는 이때, 각자의 삶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해결하며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길 소망하고 응원한다.

김성현
서울 한신초 교사. 부산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저서로는 <교과수업, 틀을 깨다>, <독서토론논술수업>, <초등학교, 이 정도는 알고 보내자> 등이 있다. 아이스크림 원격교육연수원과 한국교원연수원에 관련 연수들이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김성현 선생님의 초등교육이야기'(www.flowedu.com)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전국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독서 교육, 교수 학습 방법, 학부모 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음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응원합니다”

임명숙 — 강원 봉평중 음악교사

MUSIC

음악으로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다

확실히 도심과는 기온이 다르다. 차갑고 쨍한 날씨는 이곳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임을 새삼스레 일깨운다. 곳곳에 보이는 귀여운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 올림픽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은 올림픽이 그야말로 목전에 다가왔음을 실감케 한다.

임명숙 봉평중 음악교사는 세계인의 축제이자 대한민국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누구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 전체에 올림픽을 응원하는 분위기가 넘쳐요. 학생들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임명숙 교사가 환한 미소로 이야기의 포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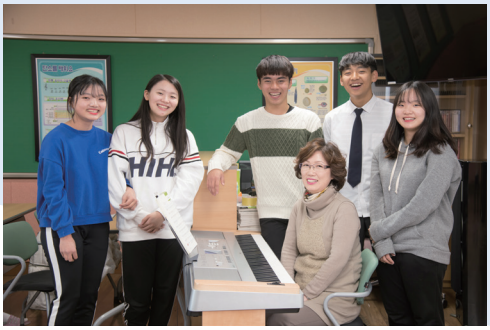
봉평중은 그동안 지역에서 다양한 예술 동아리 활동을 해온 학교로 명성이 자자하다. 핸드벨 공연단을 비롯해 대취타 악단,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축제나 행사에 숱하게 초대될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결코 강원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학교는 2008년부터 필리핀 바우앙시 구즈만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해 꾸준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공연을 하고 지역 명소도 소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필리핀에 방문해 조선시대 관리들의 공식 행진곡인 대취타 공연을 선보여 우리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파했어요. 현지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팸플릿을 나눠주며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반응요? 완전히 열광적이었어요. 한류 덕분에 우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둔 평창군은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올림픽 열기가 물씬 풍겼다.
임명숙 봉평중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음악으로 올림픽의 성공을 지원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 중이다.
올림픽 개막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임명숙 교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차가운 날씨를 뚫고 평창군으로 가 보았다.

ARI ARI
DEUTSCH
Peace
Ich liebe Deutshlq
ARI, ARI DEUTSCH
MJH
JSH
Ich liebe Deutschland
I love Peace
I love Peace maker!
Wir unterstützen
deutsche Spieler

Ich
Liebe
Deutschland



“음악은 만국 공통어로 언어가 달라도 가장 쉽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수단이에요. 우리 음악으로 나라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지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아서인지 대취타 공연에 매우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물론 필리핀 학생들이 선보인 전통춤과 음악 공연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요.”

임명숙 교사는 학생 간의 글로벌 교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 공연은 아이들로 하여금 음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보람을 느끼게 한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독일 선수단의 가장 든든한 서포터즈

봉평중이 실시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활동 중에는 ‘1학교 1국가 응원 프로젝트’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관내 학교들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와 짝을 이뤄 해당 나라와 교류하는 것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일종의 자매결연입니다. 우리 학교는 독일 선수단의 서포트를 맡아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선 응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제자에게 부탁해 독일 현지 응원가를 전해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오 필승 코리아’처럼 독일에도 비슷한 응원가가 있더라고요. 이 음악을 이용해 응원 동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임명숙 교사는 지난 12월 2일, 학생 20명과 함께 서울에 위치한 독일 문화원을 방문해 직접 제작한 응원 동영상과 포스터를 전달하고, 부원장과 함께 독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응원가를 열심히 연습해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임명숙 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행사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학생과 학교가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우리 학교 음악 동아리 학생들은 이번 올림픽 행사 외에도 지역 축제인 메밀 축제, 효석문화제 등에도 늘 초대받아 왔습니다. 음악은 아이들의 정서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학창시절,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박수를 받은 경험. 그것이 학생들에겐 자존감 향상과 성취감으로 다가와요. 더군다나 올림픽 같은 중요한 국가 행사에 자신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죠. 지금은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입니다.”

모두의 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임명숙 교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축제에 참여하고 이끌어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이들에게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평창군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자 함이다.

“음악은 만국 공통어로 언어가 달라도 가장 쉽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수단이에요. 우리 음악으로 나라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지요.”

오는 2월 9일이면 평창에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가 도착한다. 그때 봉평중 대취타 악단은 성화 봉송 주자를 환영하는 행진곡을 연주하면서 지구촌 축제의 열기에 불을 지피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현재 우리 평창군민의 가장 큰 소원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말도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앞만 보고 달리고 있지요. 학생과 지역, 학교가 협업해 올림픽을 잘 치르고 그 여세를 몰아 우리 지역이 계속 발전해나가길 소망합니다.”

소리는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하물며 그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된다면 파장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닐까. 봉평중 학생들은 물론 음악으로 지역민을 한데 묶어 흥겨운 지구촌 축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임명숙 교사. 그 꿈이 철쭉처럼 화사하게 꽃피우길 함께 빌어본다.

글 정은주 사진 한상무

평범한 것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관심으로, 이쪽저쪽 깊이 들여다보고 의미를 발견해낼수록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기 마련이다.
사람도 마찬가지. 고유한 취향과 재능의 발견은 삶을 다른 차원의 행복으로 들여놓는 전환점이 된다.
조중기 교장은 그래서 주문한다. 작은 행복에 집중하고,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가 부드럽지만 강단 있게, 직업교육과 함께한 평생의 지혜를 풀어놓는다.

이토록 즐거운 공부, 우리는 좋아서 한다

조중기 — 종로산업정보학교 서울다솜관광고 오디세이학교 교장

행복에서 발견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

교내 행사로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이른 날이었다. 소란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건물 1층 교장실에는 베토벤 교향곡과 은은한 커피 향이 대신 채워졌다. 조중기 교장의 개인적 관심사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대목.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해내는 재주가 탁월한 인물이라는 확신이 선다.

정말이지 그는 조금 '다른' 교장 선생님이다. 동료 교사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하고, 학생들에게도 '남들처럼'이 아닌 '나답게' 삶을 꾸려가기를 계속해서 응원한다. 이러한 다양성의 존중, 자신에 대한 집중, 유연한 사고는 직업교육학교인 종로산업정보학교와 서울다솜관광고 그리고 오디세이학교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일상에서 오는 행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지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커피, 클래식 음악, 식물 등 생활 주변에서 관찰하고 공부한 것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철학이 교육과정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걸 찾도록 돕는 거죠."

교직에 몸담은 지 38년, 평생을 학생들과 부대끼며 직업교육에 힘써 온 그가 체득한 진리다. 켜켜이 쌓인 세월만큼 직업교육에 대한 그의 애정이 특별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퇴임을 4년여 앞둔 조중기 교장에게 출발선은 까마득한 옛날이 된 지 오래. 그럼에도 그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고 시도라며, 설렘이 묻

CATION

“오디세이학교는 공부를 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부모와 교사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인 학생들에게 과연 그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고자 만든 학교입니다. 영어, 수학, 한국사 외에는 모두 대안 교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글쓰기, 독서, 멘토링 등 대부분 인문학이 기본입니다.”

어나는 얼굴로 ‘더 잘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한다.

“요즘은 목적 없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일찌감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는 취업할 수도,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죠. 전체 학생을 100%로 볼 때 그중 20% 정도는 선택 앞에서 갈팡질팡하는데요. 저는 이 20% 학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일찍 방향을 찾아주는 교육

조중기 교장이 몸담은 세 개 학교는 국 · 영 · 수 위주로 수업하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확실히 차별화됐다. 우선, 가장 중심이 되는 종로산업정보학교에서는 일반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직업위탁 교육이 이루어진다. 월요일은 본교에서 수업을 받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곳에서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동시에 진로를 희망하는 디자인, IT, 관광, 미용 등 14개 학과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원래는 3학년 학생이 대상이지만 2학년 조기 연계 과정도 마련했는데, 이 중 70~80%가 3학년 때도 직업교육을 택할 만큼 만족도가 높다.

“취업이든 진학이든 100%를 내세우는 교육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트렌드를 읽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하고요. 서울에서 유일하게 캐디를 양성하는 골프과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중 골프가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캐디가 전문직이라는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죠. 그런 인식을 개선하고, 더욱 커질 골프 산업 시장을 우리 학생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울다솜관광고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 학력 인정이 가능한 공립 대안학교로, 전국에서 유일하다. 2012년 개교 당시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해 관광콘텐츠과와 관광서비스과를 개설, 직업교육과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덴마크의 행복학교를 벤치마킹해 만든 오디세이학교 역시 전국에 단 하나뿐이다. 현재는 종로산업정보학교의 추가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2018년 3월 정식 개교를 앞두고 있다. ‘삶의 의미와 방향 찾기’가 학교의 비전으로 쉽게 말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하며 인생을 설계하는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디세이학교는 공부를 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부모와 교사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인 학생들에게 과연 그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고자 만든 학교입니다. 영어, 수학, 한국사 외에는 모두 대안 교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글쓰기, 독서, 멘토링 등 대부분 인문학이 기본입니다.”

틀을 깨는 용기, 새로운 변화의 시작

누구에게나 가슴 뛰게 만드는 말 한두 마디는 있을 터. 조중기 교장에게는 '용기'라는 단어가 그렇다.

"제가 살아보니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또 한 가지, 용기와 가장 근접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포기'예요. 포기도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포기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고요. 이 세 가지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저마다의 역량을 키워 용기 있게 미래를 열어갔으면 해요."

물론 이는 더 넓게는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그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얘기다. 익숙한 것을 벗고 변화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머물기에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까닭이다. 게다가 교육자라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학생들보다 몇 걸음 앞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게 조중기 교장의 생각이다.

"변화의 기본은 마인드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수업 방법이 바뀌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으로, 한편으로는 인생의 선배로서 지도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생각만으로 실현될 리는 만무하다. 조중기 교장은 변화하려는 노력이란 다시 말해 공부의 다른 표현이라고 설명을 덧붙인다. 흔히 말하는 전공 공부와는 차이가 있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감동하고 즐거워하자는 게 핵심이다. 개인적으로 행복하면 업무 효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것을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했다.

"스스로 택한 전공 공부에 눈을 빛내는 아이들을 보면 행복과 만족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알 수 있죠. 이곳 학교에서의 임기가 1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부족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직에 있는 동안은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변하자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 공부하자고요."

글 이유선 사진 한상무

동료가 된 제자와 함께하는 추억여행

서경애 울산 상안초 교사

제자의 시작,

스승의 마지막을 위해 길을 나서다

사랑할 때 모든 걸 내어준 사람은 떠날 때 아쉬움이 없다고 했던가. 36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준 서경애 교사는 교단을 떠나는 일이 아쉽지 않다고 말한다. 더욱이 제자인 최종회 교사와 마지막 추억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어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하며 웃음 짓는다.

선생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15년 전 초등학교 6학년인 한 남자아이가 서경애 교사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대뜸 "선생님, 그 진주 목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라고 물었다. 느닷없이 날아든 엉뚱한 질문에 서경애 교사는 "진짜라 하기도 애매하고, 가짜라 하기도 애매한데…"라고 얼버무렸고, 맹랑한 아이는 커서 돈 많이 벌면 진짜 진주 목걸이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지난날 선생님과 제자로 만난 이들이 지금은 동료이자 선후배 교사로 함께 여행에 나섰다. 그 깜찍한 남학생이 바로 울산 동백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최종회 교사다. 이날 여행이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는 2월 서경애 교사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스승에게 좋은 추억을 하나라도 더 선물하고픈 마음에 최종회 교사는 흔쾌히 이번 여행에 동참했다.

울산 대왕암공원을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는다. 오래전 추억담부터 서로의 학교 생활 안부, 앞으로의 계획까지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길고 도타운 인연을 짐작하게 한다.

"종회가 교사가 된 후 둘이 할 얘기가 더 다양해졌어요. 특히 종회의 모교가 동백초등학교인데, 첫 교직 생활을 모교에서 하고 있어 같은 경험, 같은 감정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죠. 제자에서 이제는 교직자의 희로애락을 허심탄회하게 터놓을 수 있는 동료가 되었어요."

사실 서경애 교사는 최종회 제자가 사범대학교에 가겠다고 할 때 크게 반대했다. 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부담과 녹록지 않은 교육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밝고 긍정적인 제자가 행여 맘고생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교직 생활 5년 차에 접어든 최종회 교사를 보며 이제는 제자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종회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오히려 신세대 교사상과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짊어지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자연스레 닮아가죠. 실제로 종회는 아이들과 친구처럼 잘 통하고 잘 어울려요."

칭찬이 멋쩍은지 최종회 교사는 모두 서경애 선생님께 배운 거라며 공을 스승에게 돌린다. 한데 이는 빈말이 아니다. 서경애 교사의 제자 사랑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다.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선생님과 연락하는 제자가 많아요. 2002년 제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당시 저희 반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선생님과 만나고 있죠. 초·중·고등학교 12년간 '선생님' 하면 언제나 서경애 선생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장생포에서 추억을 낚은 스승과 제자

주거니 받거니 칭찬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두 번째 여행지인 장생포에 도착했다. 30여 년 전 고래잡이로 전성기를 누린 장생포는 동네 개도 1만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만큼 부자동네로 유명했다. 하지만 서경애 교사에게 장생포는 설렘과 슬픔이 엇갈리는 곳이다.

"장생포에 있는 초등학교에 처음 부임했어요. 당시 장생포에는 고래잡이로 큰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난한 부두 노동자도 많았죠.

"종회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오히려
신세대 교사상과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짊어지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자연스레 닮아가죠. 실제로 종회는 아이들과
친구처럼 잘 통하고 잘 어울려요."

사제로서, 동료로서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

종희에게

자신만의 철학과 방식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네 모습이 참 대견하고, 같은 동료로서 느끼는 점도 많단다. 지금처럼 아이들을 믿고 사랑하며 즐겁게 교직 생활을 해나가길 응원할게. 아이들은 항상 네 편이란 걸 기억하길 바란다. 교사가 애정을 쏟은 만큼 아이들은 그 사랑을 꼭 기억해준단다.

선생님께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쳐오셨기에 선생님의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36년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신 만큼 이제는 오롯이 선생님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 6학년 6반 문집 제목이 '세상을 다 가져라'였듯 계획하신 세계 여행을 비롯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이루시길 응원할게요.

제가 처음 가르친 아이들은 대부분 노동자의 자녀들이었는데, 비록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다들 순수하고 착했어요.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 짠할 때도 많았고요. 그 시절 제자들과 지금도 연락을 하며 지내요. 몇 년 전에는 졸업 20주년 기념 소풍도 함께 다녀왔어요."

기억의 조각을 하나하나 꺼내 맞추며 두 사람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로 걸음을 옮겼다. 1960~1970년대 장생포 풍경을 재현해놓은 고래문화마을에서 두 사람은 옛 교복으로 갈아입고 학창 시절로 돌아가본다. 장난감처럼 작아진 책걸상에 얌전히 앉아 보기도 하고, 벌서는 인형 옆에서 똑같은 포즈를 취하기도 하는 모습이 아이처럼 해맑다. 아직 20대인 최종회 교사에게 40년 전 풍경이 낯설 법도 하건만 서경애 교사가 추억을 곁들여 조곤조곤 설명해주니 이 또한 색다른 추억으로 포개진다.

최종회 교사의 애교 섞인 장난에 웃음이 번지고, 서경애 교사는 여봐란듯이 기억 보따리를 하나 더 풀어놓는다. 서경애 교사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2002년 담임을 맡았던 당시 학급의 문집이다. '세상을 다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엮어낸 문집에는 한 해 동안 아이들이 작성한 수필, 일기, 편지 등이 빼곡히 담겨 있다. 갈피마다 쏟아지는 이야기 속에 낯익은 이름이 스친다. 다름 아닌 최종회 교사가 학창 시절 쓴 반성문.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반성문을 보며 두 사람의 대화는 또 한참을 추억 속에 머문다.

겨울 억새의 군무는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반갑다는 의미일까, 아쉽다는 의미일까? 오며 가며 차창 밖으로 눈요기만 하던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오늘은 잠시 차를 세운다. 억새가 불러일으키는 아련함 때문인지 대화는 서경애 교사의 퇴직 이야기로 옮겨진다.

"교사로서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착한 아이들 덕분에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봄소풍, 마지막 스승의 날, 마지막 여름방학, 마지막 공개수업, 마지막 가을 현장학습… 서경애 교사는 하나라도 놓칠세라 순간순간을 기억에 모으고 있다. 아울러 아낌없이 사랑해야 헤어질 때 아쉬움이 없다는 걸 서경애 교사는 36년간의 교직 생활을 통해 몸소 깨달았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사랑을 나눠주고 있다.

겨울이 떨궈낸 꽃과 잎이 씨앗이 되고 거름이 되어 화창한 봄을 열 듯, 서경애·최종회 교사가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랑이 아이들의 봄을 꽃피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십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10줄 내외로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을 떠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사제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대왕암공원

"내가 죽으면 화장해 동해에 장례하라. 그러면 용이 되어 신라를 보호하리라." 문무대왕비의 유언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는 전설 덕분에 대왕암이라 불린다. 1만5000 그루의 해송, 붉은빛 기암괴석과 푸른빛 바다가 어우러져 잊지 못할 풍광을 선사한다.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97
문의 052-209-3738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고래잡이로 유명했던 장생포의 과거를 재현하고자 2015년에 조성됐다. 고래광장, 장생포 옛마을, 선사시대 고래마당, 고래조각정원 등 볼거리가 다채롭다. 고래잡이가 성행했던 1970년대 이전 장생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이자 교육의 현장이다.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관람 시간 화~일요일 9:00~18:00(월요일 휴관)
문의 052-226-0980

태화강 억새군락지

대부분의 억새군락지가 산이나 언덕 위에 위치한 것과 달리 태화강 억새군락지는 도심 한가운데 펼쳐져 있다. 해마다 가을, 겨울이면 울산 중구 · 남구 · 북구에 걸쳐 광활한 억새밭이 장관을 연출한다. 억새밭 사이로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있어 가족, 연인, 친구 등 누구와 함께해도 좋다.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일대

글 **이병문**(몽골 에르데네트 13번 학교, 충남 홍주초 교사)
사진 **이병문, 강경호**(몽골 에르데네트 13번 학교, 경기 금당초 교사)

무지개 나라 선생님의 몽골 탐방기

몽골에서는 한국을 솔롱고스(무지개)라고 부른다.

유네스코 산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PCEIU)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가정 대상국 교사 교류 파견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2017년 8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100여 일간 몽골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 전, 몽골 하면 말을 타고 광활한 초원을 달리는 사람들만 떠오를 뿐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라는 것, 그리고 '센-베노'라는 첫 인사말 정도만 알고 설렘과 긴장감을 지닌 채 몽골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구리와 카펫의 공업 도시, 에르데네트

제가 생활한 곳은 '보석'이라는 뜻을 지닌 '에르데네트(Erdenet)'라는 이름의 도시입니다. 수

MONGOLIA

도 울란바토르에서 자동차로 약 7시간 거리에 있으며, 구리 공장과 카펫 공장이 위치해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몽골의 제 2도시'로 불립니다.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오랜 시간 이동한 끝에 에르데네트에 도착하자마자 든 첫 느낌은 이러했습니다. '어, 상상하던 몽골의 모습이 아닌데?' 이전까지 갖고 있던 몽골에 대한 이미지와 달리 에르데네트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반듯한 포장도로를 달리고 있고, 거리 곳곳에 상가와 문화 시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복장 또한 우리나라와 그다지 다르지 않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지리를 살펴보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커다란 현대식 건물이 보여 통역사에게 물어보니 영화관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영화관이라니!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 저였기에 앞으로 에르데네트에서의 생활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센-베노! 에르데네트 13번 학교

몽골에서는 학교마다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이는데, 제가 근무한 학교는 '에르데네트 13번 학교'였습니다. 몽골 학교의 학사 일정은 9월 1일 시작하는 만큼 처음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 건물 외벽을 다시 페인트칠하고 교실을 꾸미는 등 분주하게 새 학년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9월 1일이 되자 현지 협력 교사의 안내로 한국 파견 교사들도 입학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은 학교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성대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달리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고, 졸업할 때까지 1학년 입학 당시 담임 선생님이 계속 같은 학급을 맡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 기대되면서 긴장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입학식 중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단상에 세우시고는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 재미있으면서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잘 해보자, 에르데네트 13번 학교!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시작

몽골에서의 하루는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몽골의 날씨는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날씨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면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맞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 땀을 흘리거나 급락한 영하의 기온에 으슬으슬 몸을 움츠리며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한 학교에서 초·중·고등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가 많은 데 비해 교실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수업은 오전, 오후 2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수업과 중학생 융합과학 동아리 수업을 맡았습니다. 2학년부터 5학년까지 모든 학급의 한국 문화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은 한국에서 온 선생님인 제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 솔롱고스 박하잉깅 박시." 학생들이 제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전 한국의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가족 중 한 명 정도는 한국을 방문했거나 한국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매우 친숙한 나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인지 친근하게 다가오는 학생들의 모습에 조금은 감동했습니다. 중학 과정은 우리나라처럼 1학년부터 3학년까지로 희망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융합과학 동아리 수업을 하였습니다. 태평소·가야금 만들기 등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학습 교재를 활용해 STEAM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들로서는 처음 접해보는 수업 방식과 교재가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데는 통역사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통역사 선생님과의 Co-Teaching은 제게 매우 흥미로운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몽골에 오기 전부터 교수 학습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에 저와 통역사 선생님은 서로를 보며 뿌듯한 미소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몽골 전통문화인 게르와 허르헉

예전부터 몽골의 전통문화 체험은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왔는데 운이 좋게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짝 선생님의 지인을 소개받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짝 선생님의 지인은 몽골 초원에서 양과 말을 키우고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짝 선생님과 함께 차를 타고 에르데네트를 조금 벗어나자 평소 몽골 하면 떠오르던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생각하던 몽골의 모습이지!" 그렇게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더 달리자 몽골 현지인이 사는 게르에 도착했습니다. 게르 주변을 둘러보니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많은 하늘은 한국에서는 좀체 볼 수 없는 진귀한 풍경이었습니다. 자연의 웅장함에 나 또

한 작은 자연의 일부로서 한껏 동화되는 느낌! 이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초대해준 분이 직접 양 한 마리를 잡아 몽골 전통 음식을 대접해주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허르헉.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허르헉은 양고기에 각종 채소를 넣어 삶은 요리로 고기 본연의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며 맛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는 집주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 발짓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늦은 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새삼 언어는 서로 달라도 이렇게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자리를 정리하고 잠을 자기 위해 게르 안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밖의 날씨는 다소 쌀쌀했지만 게르 안은 매우 따뜻해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게르에서 지낸 하루는 몽골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00일간의 몽골 생활을 마무리하며…

몽골과 한국의 문화는 다른 점이 많지만, 몽골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겉모습은 한국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있으며, 한국 역사에도 몽골은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 몽골의 많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가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서 한국에서 몽골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좋은 점을 배워가며 함께 발전해나가는 것이야말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한국에서 몽골 사람을 만난다면 용기 내어 먼저 '센-베노!'라고 인사하며 다가갈 것입니다.

이병문
충남 홍주초 6학년 담임교사. 더욱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던 중 교육과 문화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자 '다문화 가정 대상국 교사 교류 파견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100여 일간 몽골에서 파견 교사로 근무하였다. 2016년 다문화연구학교에 근무하면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관심과 국제 교육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해당 분야를 깊이 공부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펼치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글 정수희 사진 장병국

시인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담은 곳

윤동주문학관

서울 경복궁을 지나 자하문 고개 위엔 순백의 건물이 자리해 있다. 2012년 개관한 '윤동주문학관'으로, 인왕산 자락에 버려진 청운수도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해 시인 윤동주를 다시금 기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수도가압장은 약해지는 물살에 압력을 가해 다시 힘차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느슨함을 용납하지 않고 다시금 거세어지는 물살이 시인과 닮았다.

윤동주문학관은 간결하다. 시인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기엔 협소한 공간일 수도 있지만 그가 바랐던 삶처럼 꾸밈이 없다. 1전시실은 시인의 순결한 시심을 담은 실내 공간이다. 9개의 전시대에는 윤동주가 살아온 자취를 따라 그의 사진, 육필 원고, 그리고 시가 놓였다. 일본 유학을 준비하며 창씨한 이름 옆 밑줄 그어진 윤동주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보인다. 시인의 시와 문장을 감히 소리 내어 읽어본다. 특히 <참회록> 행간에 휘갈겨 쓰인 청년의 고뇌가 담긴 낙서를. 단어 하나하나에 못 다 한 얘기를 꾹꾹 눌러 담았을 그의 마음과 함께. '侍란?, 文學, 生活, 存在, 生, 힘…'

2전시실과 3전시실은 감춰져 있던 2개의 물탱크였다. 2전시실은 물탱크 윗부분을 개방해 낮에는 햇볕이, 밤에는 별빛이 가득 쏟아진다. 바람이 손님처럼 찾아들기도 한다. 아무것도 없지만, 시인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있는 공간이다. 3전시실은 폐기된 물탱크를 그대로 보존했다. 두꺼운 철문을 밀어야 들어갈 수 있다. 철문이 하나 놓였을 뿐인데, 공기마저 사뭇 다르다. 들어서면 벽화처럼 물때가 끼인 벽면이 보인다. 시인이 마지막에 머물렀던 후쿠오카형무소의 감방이 스친다. 마지막으로 윤동주의 생애가 담긴 10분 남짓한 영상이 끝나면, 그의 울음인지 내 안의 울림인지 모를 마음에 요동이 친다. 그의 영혼이 작은 홀씨로 날아와 우리들 마음에 큰 물살이되길. 내일이 없던 시인, 윤동주. 그러나 그의 삶이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윤동주문학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119
02-2148-4175 www.jfac.or.kr

글 **김영은** (트렌드 전문기자)

2018 편의점·쇼핑몰을 관통할 키워드 3선

2017년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첨단 기술과 사용자 편의가 만나 혁신을 이루는 지금, 소비자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반영되는 유통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2018년 유통가를 관통할 키워드는 무엇일까.

KEYWORD 1
무인(無人)

직원이 사라진다

손바닥 하나로 입장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스마트 무인 편의점이 국내에 처음 탄생했다. 2017년 5월 롯데월드타워에 오픈한 '세븐일레븐 시그니처'가 그 주인공이다. 이곳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핸드페이(Hand Pay)'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핸드페이는 롯데카드의 정맥 인증 결제 서비스로, 사람마다 다른 정맥의 혈관 굵기와 선명도, 모양 등의 패턴을 이용해 사람을 판별한다. 손바닥 정맥 정보를 암호화된 난수로 변환해 롯데카드에 등록한 후 결제 시스템에 간단히 손바닥을 대는 인증 과정만 거치면 본인 확인 및 물품 결제가 가능하다. 무인결제 시스템, 그 시작은 '아마존 고(Amazone Go)'였다. 미국 최대 유통기업 아마존은 2016년 12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최초의 인공지능형 온·오프라인 통합 스토어를 열었다. 스마트폰에서 아마존고 앱을 활성화시킨 뒤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쇼핑이 끝난다. 인공지능 카메라와 센서가 알아서 결제를 해주기 때문. 아마존고를 필두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통업계의 무인 바람이 뜨겁게 일고 있다. 국내에도 세븐일레븐에 이어 이마트 24가 2017년 6~9월 무인 매장을 네 곳이나 개점했다. 이미 시작된 무인 결제 열풍은 발전을 거듭하며 머지않아 우리 삶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KEYWORD 2
몰링, 그 이상의 가치

짜릿해! 늘 새로워! 경험이 최고야!

복합 문화 공간에서 모든 걸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몰링(malling)'. 한때 아기자기함과 아날로그 감성으로 무장한 '골목 상권'이 떠오르자 그 시대가 끝나가는 듯했지만 2017년 새로운 몰링 트렌드를 이끌 '스타필드'가 등장했다. 스타필드는 막강한 문화 시설을 내세우며 다시 사람들의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스타필드가 몰링, 그 이상의 가치를 선보이기 위해 강화한 콘텐츠를 소개한다.

주부가 된 밀레니얼 세대, 그로서란트 마켓으로

대형 마트와 복합 쇼핑몰은 가치 소비와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 태어난 세대) 주부를 겨냥해 '그로서란트(grocerant)' 마켓을 내세우고 있다. 그로서란트는 그로서리(grocery, 식료품)와 레스토랑(restaurant, 식당)을 합한 말로, 고객이 식재료 구입(장보기)과 요리(식사)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이다.

스타필드 하남과 스타필드 고양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식품 매장 'PK마켓'은 구매한 식재료를 조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 먹고 싶은 부위와 등급의 고기를 골라 '부처스테이블(Butcher's Table)'에 가져가면 바로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

가 나온다. 또 최근 스타필드 고양에서는 랍스터나 조개, 장어 등을 조리해 먹는 '라이브 랍스터 바'를 선보이기도 했다.

어른이들을 위한 놀이터 '스포츠몬스터'

스타필드를 찾은 어린이들이 초대형 브릭 전시 체험 공간 '브릭라이브(Bricklive)'로 향한다면, 마음만은 어린 '어른이'들은 스포츠몬스터(Sports Monster)로 향한다. 스포츠몬스터에서는 VR 놀이기구, 대형 트램펄린, 암벽등반 등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애들만 있는 거 아냐?'라는 걱정은 접어둬도 좋다. 이곳에 가면 해맑은 표정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놀고 있는 어른들을 볼 수 있다. 1500평 규모를 자랑하는 스타필드 고양 스포츠몬스터에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64m 지프코스터, 8m 드롭 슬라이더 등 다이내믹한 시설도 들어서 있다.

펫팸족도 환영

추운 겨울, 강아지와 함께 산책할 만한 곳을 찾고 있다면 스타필드로 향해보자.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이니만큼 스타필드에서는 '펫팸족(Pet+Family)'을 환영하고 있다. 스타필드 하남점과 고양점은 일부 매장을 제외하면 반려견 동반 쇼핑이 가능하다. 다만, 목줄 착용과 예방접종은 필수이며, 반려견이 용변을 볼 경우 쇼핑몰 곳곳에 비치된 배변 봉투를 이용해 직접 치워야 한다.

KEYWORD 3

언택트 마케팅

친절 대신 침묵으로

"찾는 물건 있으세요?" 구경만 하러 들어갔는데 점원이 다가오면 괜스레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반영해 유통업계에서는 '언택트(untact, 비대면)'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선보인 '혼자 볼게요' 바구니가 대표적이다. 매장에 입장하면 두 종류의 바구니가 비치돼 있다. 고객이 '혼자 볼게요' 바구니를 들면 점원은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이같은 침묵 서비스가 유통가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불편한 소통을 원치 않는 고객을 위해 매장에 비치된 스마트 테이블, 키오스크가 상품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화장품을 직접 바르지 않더라도 거울을 통해 실시간으로 합성해 보여주는 스마트 미러도 등장했다. 친절한 서비스 대신 편한 단절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언택트 기술도 덩달아 발전하고 있는 것.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 소비자들의 소외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TREND

글 이미진, 허성환 사진 황원

사진 속에
우정과 행복을 담아냅니다

왼쪽부터 / 권춘란, 김은희, 박윤흠, 김호영, 김창영(회장)

함께 나눌 수 있는 취미 활동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낸다. 공감의 소재를 함께 만들어가며, 서로에게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닌, 공감과 문화를 창조하는 투자이자 인생에 활력을 더하는 자양분이다. 울산대학교병원 사진 동호회 '포커스' 회원들의 출사 현장에서 그들이 창조하는 문화를 들여다보았다.

울산대학교병원 사진동호회 「포커스」

소통과 공감으로 발전하는 '관계'

고된 일상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식의 취미 활동을 즐기기 마련이다. 특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즐기며 공감하는 취미 활동은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발전시킨다. 울산대학교병원 사진 동호회 포커스 회원들이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발전'을 동아리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이구동성 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대학병원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 10년 넘게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한 서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이다.

2005년 첫 발을 내딛고 10년 넘게 동아리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동아리 활동이 이런 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다. 그저 사진이 좋아 모인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사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과정은, 동아리가 아니었다면 결코 생각조차 못했을 일이다. 지금은 서로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면서, 얼굴 붉히며 해야 했던 이야기도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김창영 회장은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고 다정하게 서로를 대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만큼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런 원동력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생겨난다는 사실이 놀랍더라고요. 회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요"라며 웃는다.

사진에 대한 열정으로 만든 동호회

사진 동호회 포커스는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김창영 회장의 경우, 어릴 때부터 사진을 유독 좋아해서 사진에 대한 열정이 가슴 한편에 항상 꿈틀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쉽게 접근하지 못했는데, 마침 주변 동료 중에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 만나 동아리를 결성하고 10년 넘게 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포커스 동호회 회원들은 월 1회 주말을 이용해서 출사를 나간다. 비록 한 달에 한 번밖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들이 찍은 사진은 연말에 사진전을 통해 세상에 선보인다.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한 사진전은 작년 12회째를 맞았다. 단순히 사진이 좋아 모인 아마추어 동호인들이지만, 이들의 활동이 프로 못지않다는 것을 사진전 개최가 말해준다.

김 회장은 "사진전을 개최하다 보니 목표 의식이 생겨, 더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사진전에 출품한 작품들 중 일부는 병원 곳곳에 걸리기도 합니다. 병원 곳곳에 걸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짜릿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쌀쌀한 날씨에도 훈훈했던 출사

12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2017년의 마지막 출사를 위해 태화강 생태관으로 회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지고 해도 짧아져, 이날의 일정은 빠듯하게 잡혀있었다. 하지만 회원들의 표정에는 나들이 나온 가족들마냥 여유가 묻어있었다.

생태관 관람을 시작으로 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회원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생태관에 전시된 수중 생물을 카메라에 담아내기 위해 저마다 가방에 든 카메라를 꺼내 연신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한 것. 물속의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내기가 어려웠던지 후배 회원들은 선배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며, 각자의 카메라에 수중 생태를 담아냈다. 또 그 중엔 촬영 중간 중간 서로 촬영한 모습을 담기도 했다. 동호회원

김호영 씨는 “멤버들 모두 바쁜 일정이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선후배간 노하우를 전해주기도 하고, 서로의 속내를 스스럼없이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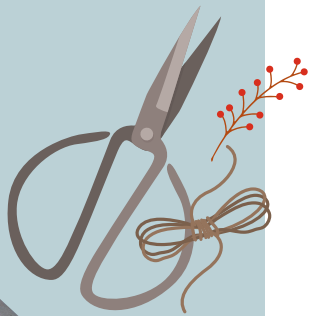
출사는 생태관에서 시작하여 태화강으로 이어졌다. 강변으로 무성하게 자란 억새와 일몰 무렵의 태화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었다. 회원들은 모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변 풍경을 살피며 다양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갈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2018년에도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이어갔으면 합니다”라고 이구동성 전하며, 서로를 향한 화이팅과 함께 이날의 출사를 마무리했다.

김호영 회원 作

글 엄용선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선물

2018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 한마디씩을 주고받는다. '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특별한 정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선물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1 한국 전통 매듭을 연구하고 창작 동림매듭공방

2004년 4월, 매듭처럼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탄생한 동림매듭공방. 공방을 운영하는 심영미 관장은 조선 궁중에서 매듭짓는 일을 한 시왕고모와 그 기술을 전수한 시아버지로부터 매듭을 사사한 우리나라 전통 매듭의 권위자다. 서울 북촌,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 마련된 동림매듭공방에는 한국 전통 매듭을 연구하고 창작하며 지낸 심영미 관장의 지난 40여 년 세월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곳에서는 노리개, 허리띠, 주머니, 선추, 유소 등 전통 유물과 그 재현품을 비롯해 현대적 감각에 맞게 창조한 심영미 관장의 창작품이 매듭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뽐내고 있다. 공방을 찾아 잠자리 휴대폰 줄, 팔찌, 목걸이 만들기 등 일일 체험을 통해 다양한 매듭의 세계를 경험해보고 특별한 새해 선물을 마련해보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2길 10 02-3673-2778
화~일요일 10:00~18:00(매주 월요일 휴관) www.shimyoungmi.com

2 버려진 것들에 재주 더하기 반짝반짝 지구상회 (재주도 좋아)

'비치코밍(Beachcoming)'을 통해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끊임없이 밀려와 쌓여가는 대책 없는 바다 쓰레기 문제를 예술로써 함께 해결해보고자 탄생한 문화 예술 단체. '반짝반짝 지구상회(재주도 좋아)'는 2013년 11월 '바라던 바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비치코밍 활동을 이어왔다. 오래전 난파선에서 떠밀려온 음식이나 생필품, 유리 조각이나 깨진 조개 등 줍는 것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렇게 모은 바다 쓰레기에 예술을 입히는 '재주추가 워크숍'은 버려진 것들에서 가능성을 찾고, 그것에 각자의 재주를 더하는 작업이다. 바다 유리 얼굴 브로치 만들기, 해녀 모빌 만들기, 바다 유리 액자 만들기, 실크스크린 에코 백 만들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바라던 제주 바다에 왔으니 재주도 좋은 예술가들과 함께 비치코머가 되어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파도를 그리고, 춤을 춰보자. 새해, 서로에게 고마운 선물이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2길 9 수~일요일 11:00~17:00(월·화요일&비치코밍 날 휴무)
www.jaejudojoa.com

3
아름다운 행궁길에서 만난 이채로움

팔달문 공방거리

화성행궁에서 팔달문에 이르는 420여m의 거리, 이 거리에는 16개의 아름다운 행궁길 공방과 48개의 화성행궁 맛촌이 모여 있다. 수공예 가방 상점, 가죽과 철사로 만든 공예품점, 나무 서각 공방, 압화 공예점에 양복점, 세탁소, 이발소 등등. 특이하고 이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행궁길 공방과 맛촌에 자리한 각 상점은 저마다의 특성을 드러내는 간판과 아트 기와, 기와 벽화, 칠보 벽화 등으로 개성 넘치는 외관을 뽐낸다. 서각 공예를 하는 '나무아저씨'를 비롯해 칠보 공예를 하는 '나녕공방', 수묵화와 천연 염색을 하는 '은향공방', 압화 공예를 선보이는 '수수꽃다리', 테디베어를 만드는 '손노리연구소' 등 각양각색의 공방이 위치한 팔달문 공방거리에서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하는 것과 함께 고마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마련해보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화성행궁) 031-228-7823(행궁동주민센터)

4
나만의 향기를 디자인

에이치빌라

남들과 똑같은 향수는 거부한다. 천편일률적인 향기는 가라. 나에게 꼭 맞는, 오롯이 나를 대변하는 향기를 갖고 싶다는 욕구는 여러 가지 향을 섞어 나만의 향기를 만드는 '니치 향수'의 유행을 불러왔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에이치빌라'는 나만의 향기를 디자인하는 '향기 제조 숍'이다. '나만이 향수 만들기 일일 체험'을 통해 100여 가지 향기 중 좋아하는 향을 직접 골라 '나만의 향수'를 완성할 수 있다.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전문 조향사의 도움을 받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은 나만의 향기 찾기, 선별 제조 과정을 포함해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만큼 실패 확률도 낮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향수는 2주간의 숙성 기간을 거쳐 향기가 안정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나를 위한 선물 혹은 주위 고마운 분들을 위한 선물로 이보다 특별한 것이 또 있을까. 수업은 100% 예약제로 운영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해운대 로데오아울렛), A동 2층
010-4539-5509 매일 13:00~18:00 hihvilla.modoo.at

5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

란아뜰리에

대전시 용두동에 자리한 '란아뜰리에'는 유약을 입혀 구운 도자기에 전용 안료를 사용해 페인팅하는 '포슬린 아트' 전문 공방이다.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를 지닌 나만의 도자기를 만드는 포슬린 아트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먼저 무지 도자기에 스미는 안료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드로잉을 한 도자기는 800˚C 전후의 가마에 굽는데, 이 과정을 세 번 이상 반복해야 비로소 도자기가 완성된다. 완성된 도자기는 안료가 완전히 스며든 만큼 거친 수세미로 문질러도 그림이 지워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도자기인 것.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그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포슬린 아트로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장만해보면 어떨까?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로 4 042-226-9466 월~금요일 10:00~ 22:00, 토요일 10:00~ 17:00(일요일·공휴일 휴무) daejeonporcelainpainting.com

글·사진 **최갑수** (여행작가)

화려한 미식의 향연, 규슈로 떠나는 맛 기행

일본 - 후쿠오카에서 구마모토까지

후쿠오카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54번 국도를 따라 달렸다. 이곳 사람들은 후쿠오카에서 이토시마까지 이어지는 33.3km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선셋로드(Sunset road)라고 부른다. '일본의 100대 석양 스폿'에 빠지지 않는 이 길에는 예쁘장한 카페며 바,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다.

돈코츠 라멘의 진수를 맛보다

선셋로드에 들어서기 전, 후쿠오카에 도착하자마자 돈코츠 라멘 한 그릇을 '흡입'했다. 후쿠오카는 돈코츠 라멘의 본고장. 대표적인 돈코츠 라멘 프랜차이즈인 '잇푸도 라멘'은 돼지뼈를 푹 고아 우린 육수 맛이 일품이다. 구수하고 걸쭉한 국물은 처음 맛보면 너무 진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감칠맛이 나 어느새 중독되고 만다. 라멘 마니아라면 빼놓지 말고 가야 할 곳이 후쿠오카 남쪽에 자리한 구루메다. 인구 30여 만명의 산업도시인 이곳에는 1953년 문을 연 라멘집 '다이호'가 있다. 가쓰키 노보루 씨가 63년 전 포장마차로 시작해 지금은 히토시 씨가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다. 이 집 돈코츠 라멘 맛의 비결은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불을 끄지 않고 끓여내는 돼지뼈 육수. 그래서인지 풍미가 한층 깊고 맛이 진득하다. 2014년에는 3500엔 이하 맛집을 대상으로 한 <미쉐린 가이드-후쿠오카 특별판>에 본점과 분점 한 곳씩이 선정되기도 했다.

1

2

3

4

5

6

1. 돈코츠 라멘의 본고장, 후쿠오카 남쪽 구루메에 위치한 라멘집 '다이호'는 1953년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불을 끄지 않고 끓여내는 돼지뼈 육수를 자랑한다.
2. 사가현 '가니고텐 료칸'은 아리아케 바다 수심 10m에 서식하는 다케자키 게를 이용한 가이세키 요리로 유명하다. 이 요리를 맛보기 위해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다.
3. 시마바라에는 400년 동안 10대에 걸쳐 카스텔라를 구워오고 있는 '마쓰이시니세'가 있다. 진정한 카스텔라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랄까.
4. 미나미 시마바라 '멘쿠이'
5,6. 운젠에 들린다면 '후쿠다야 온천'의 가이세키를 꼭 맛보자.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는 해산물 맛에 깜짝 놀랄 정도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해산물 요리

선셋로드를 계속 달려 닿은 곳은 사가현. 사가현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다라초라는 작은 마을에 자리한 '가니고텐 료칸'은 아리아케 바다 수심 10m에서 서식하는 다케자키 게를 이용한 가이세키 요리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만큼 오직 이 요리를 맛보기 위해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다. 게튀김을 비롯해 게구이, 게밥 등 다케자키 게 요리를 코스로 선보이는데, 끝없이 나오는 게 요리가 겨울밤을 더욱 황홀하게 만든다. 살이 통통하고 감칠맛이 좋은 다케자키 굴도 게 못지않은 별미다.

규슈 미식 로드는 후쿠오카에서 나가사키로 이어진다. 나가사키 초입에 자리한 운젠은 온천으로 유명한 고장. 마을 곳곳에서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온천수를 이용해 해산물을 쪄내는 '무시카마야'집이 바닷가를 따라 즐비하다. 무시는 찜, 카마야는 통이라는 뜻이니 우리말로 하면 찜통집쯤 되겠다. 가게 안 진열대에서 문어, 굴, 조개 등의 해산물과 고구마, 각종 채소 등을 골라 바구니에 담으면 가게 입구에 마련된 커다란 찜통에서 곧바로 쪄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찜도 맛있지만 요쿠바리 동이라는 덮밥도 맛있다.

운젠에서 하룻밤 묵는다면 후쿠다야 온천 료칸의 가이세키를 꼭 맛보자. 일본 여러 곳을 여행하며 많은 가이세키를 맛보았지만 이곳의 가이세키는 추천하고 싶을 만큼 훌륭하다. 주방장이 칼맛을 안다. 이키섬의 오징어와 얼리지 않은 생참치의 붉은 살은 입에서 살살 녹고, 가다랑어 내장 젓갈에 버무린 문어는 입에 넣자마자 그 맛에 깜짝 놀랐을 정도다. 도토리 소바, 고래 소장 훈제, 약물 젤리 등의 음식이 차례로 나올 때마다 생맥주가 술술 넘어갔다.

400년 전통의 카스텔라와 수타 소면

운젠을 지나면 시마바라가 나오는데, 이곳에는 아주 오래된 카스텔라 가게가 있다. 400년 동안 10대에 걸쳐 카스텔라를 만들고 있는 '마쓰이시니세'가 바로 그곳. 현 주인 마쓰이 히로시 씨는 10대째 주인이다. 이 집 3대조 어르신은 고산야키 기법을 고안했다. 고산야키 기법은 보통 카스텔라와 달리 밀가루를 줄이고 달걀을 많이 넣되 달걀 노른자와 흰자 비율을 5:3으로 배합해 굽는 것이다. 마쓰이시니세의 카스텔라 못지않게 인기 있는 분메이의 카스텔라는 또 다른 맛이다. 좀 더 묵직하고 진하다고 할까. 한 입 베어 물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카스텔라'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다.

시마바라 옆에 자리한 미나미 시마바라는 인구 4만7000명의 작은 도시에 소면 공장이 무려 300개가 넘게 자리해 '소면의 도시'로 불린다. 특히 400년 역사를 자랑한다는 '수연 소면'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수연(手延) 소면'은 이름 그대로 손(手)으로 늘인(延) 면이다. 이는 면의 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시청 건너편에 자리한 '멘쿠이'에는 라멘이나 짬뽕식으로 끓인 소면이 있는가 하면, 오징어 먹물을 첨가한 면에 명란젓을 얹어 내는 비빔 소면도 있다.

지금껏 일본을 여행하며 규슈만큼 먹거리가 만족스러운 지역은 만나지 못했다.
'일본의 부엌'이라고 불리는 오사카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오사카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각 현마다 특색 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것은 물론 기후가 따뜻하고 온천이 발달했으며,
비행시간이 짧은 것도 규슈 여행의 장점이다.

1

2

3

1. 가고시마 소주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가고시마 중앙역 앞 '야타이무라(포장마차촌)'을 찾아보자.
2. 규슈 남동쪽에 자리한 미야자키의 료칸에서는 동물성 음식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미야자키산 채소만으로 15~16가지 코스의 가이세키를 차려낸다.
3. 가고시마추오역 인근에 자리한 '구로가츠테이'에서는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두툼한 흑돼지 돈가스를 맛볼 수 있다.

독특한 향토 요리의 향연

조금 독특한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규슈 최북동단에 자리한 기타큐슈로 향해보자. 전형적인 공업도시인 까닭에 예로부터 노동자를 위한 음식이 발달했다. 대표적인 음식이 철판 교자. 1958년부터 기타큐슈에서 먹기 시작해 일본 전역으로 퍼졌다. 기타큐슈 시민들의 교자 사랑은 각별해서 교자를 반찬으로 먹을 정도다. 교자 정식을 주문하면 쌀밥과 교자 한 판이 나온다.

규슈 남동쪽에 자리한 미야자키는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였다. 미야자키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은 '지조안'이라는 료칸의 채식 요리. 고기와 생선, 달걀을 포함해 동물성 음식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미야자키산 채소만으로 15~16가지 코스의 가이세키를 차려낸다. 모든 코스 하나하나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지조안도 자부심이 매우 대단해 이 요리를 '지조안풍 창작정진 요리(地藏庵風創作精進料理)'라 이름 붙였다. 미야자키의 또 다른 대표 요리는 '치킨남방'이다. 닭고기에 튀김가루와 달걀을 입혀 튀긴 후 감초에 가볍게 적셔 타르타르 소스를 찍어 먹는 요리로 미야자키가 발상지다. '오구라' 본점이 원조로 알려져 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돼지가 소주에 빠진 날. 규슈 남단 가고시마 여행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가고시마 여행은 돼지고기로 시작해 소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고시마는 일본 최대 흑돼지 산지다. 가고시마추오역 인근에 자리한 '구로가츠테이'는 가고시마에서 손꼽히는 흑돼지 돈가스 집으로, 1975년 문을 열었다. 추천 메뉴는 최상급 등심으로 만든 '상 로스가츠 런치'.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두툼한 돈가스가 접시 위에 '늠름하게' 올라 있다. 돈가스 단면을 보면 지방이 절반인데, 이는 지방을 일부러 제거하지 않은 것이다. 느끼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고기 사이에서 빠져 나온 육즙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

한편, 일본인 대부분은 사케를 즐겨 마시지만 가고시마 사람들에게 술은 곧 소주다. 가고시마 전역에 고구마 소주를 빚는 양조장이 110여 곳에 이르는데 특히 '메이지 구라'는 메이지유신 때 만들어진 소주 제조법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가고시마 최대의 소주 공장이다. 이 회사의 대표 술은 '시라나미(白波)' 소주. 달짝지근한 고구마 소주와 함께하면 여행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

마지막 일정은 규슈에서 후쿠오카 다음으로 큰 도시인 구마모토다. 구마모토 외곽의 히라야마 온천 마을에 자리한 '산초 지도리'는 아마쿠사다이오라는, 키가 1m, 체중이 10kg에 나가는 거대한 토종닭을 화로에 구워 내놓는데 특히 모래집의 꼬들꼬들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후쿠오카나 구마모토에서 아마쿠사다이오를 먹을 수 있는 곳은 이 집이 유일한 만큼 주말이면 미식을 찾아 나온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여행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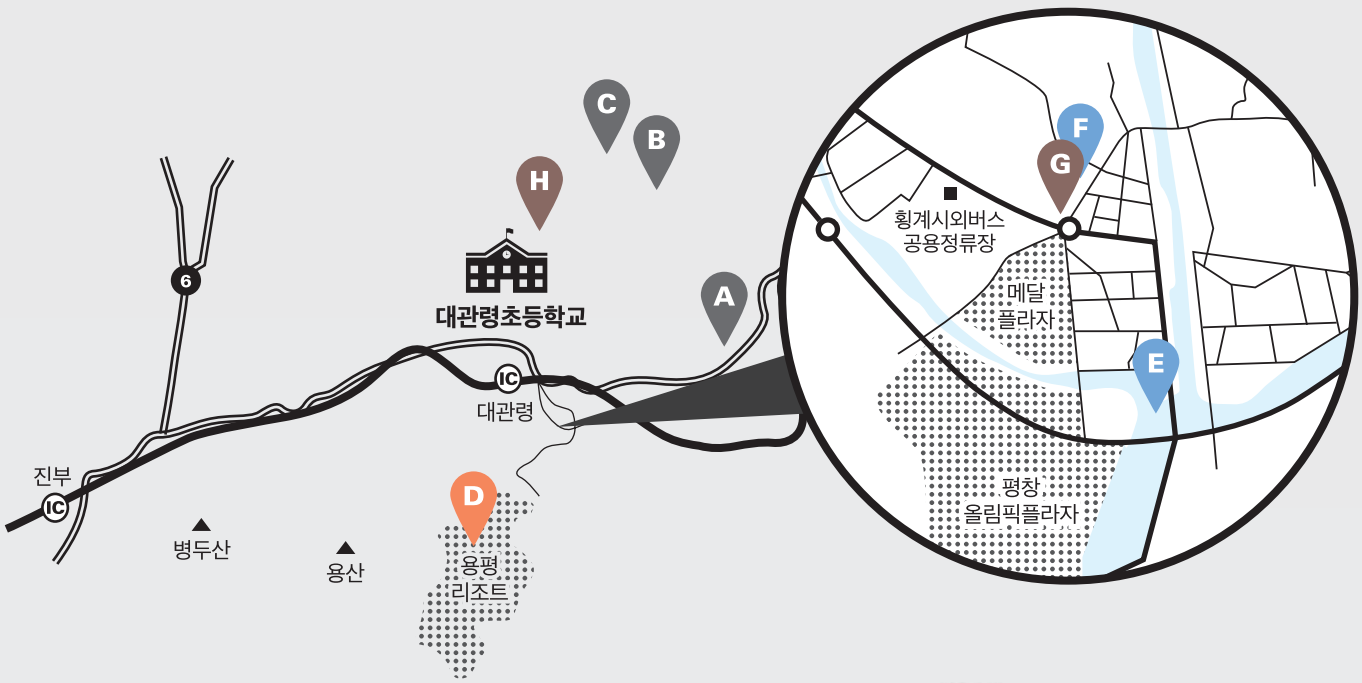
인천공항에서 규슈 각 현으로 다양한 항공편이 운항된다. 규슈 레일패스를 이용하면 규슈 내에서 JR(일본철도)을 5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일본 여행의 묘미는 이자카야에서 술 한잔하는 것이 아닐까. 가볍게 술 한잔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이자카야를 골랐다. 후쿠오카의 '야스베 오뎅'은 아흔 살 가까운 노부부가 운영하는 오뎅집. 가고시마에서는 '야타이 무라'에 가보자. 모두 25개의 점포가 모여 있는데, 야키도리부터 라멘 등 저마다 특별한 요리를 내는 집이 어깨를 맞대고 모여 있다. 구마모토에서는 '호루몬 야키니쿠'를 추천한다. 간장 양념으로 맛을 낸 일본식 불고기를 맛볼 수 있다. 나가사키 운젠 온천마을의 '후쿠토미'는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자그마한 이자카야다. 작은 바와 방이 하나 있는데 일본 특유의 운치를 느끼며 소주 한잔하기에 제격이다.

글·사진 **최민지** (강원 대관령초 교사)

강원 대관령초 주변 추천 명소

최민지 교사가 추천하는

2018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다. 그 중 개폐회식이 열리는 대관령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관령면은 'HAPPY 700'을 슬로건으로 내걸 만큼 고도가 높아 겨울 스포츠가 유명할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다. 대관령면을 방문할 때 모두 즐기고 간다면 더 뜻깊은 여행이 될 것이다. 여행의 팁을 한 가지 말하자면, 대관령에 방문할 때에는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추위를 느낄 수 있으니 겨울에 온다면 완전무장을, 여름에 오더라도 긴 팔 카디건 하나는 꼭 챙겨오길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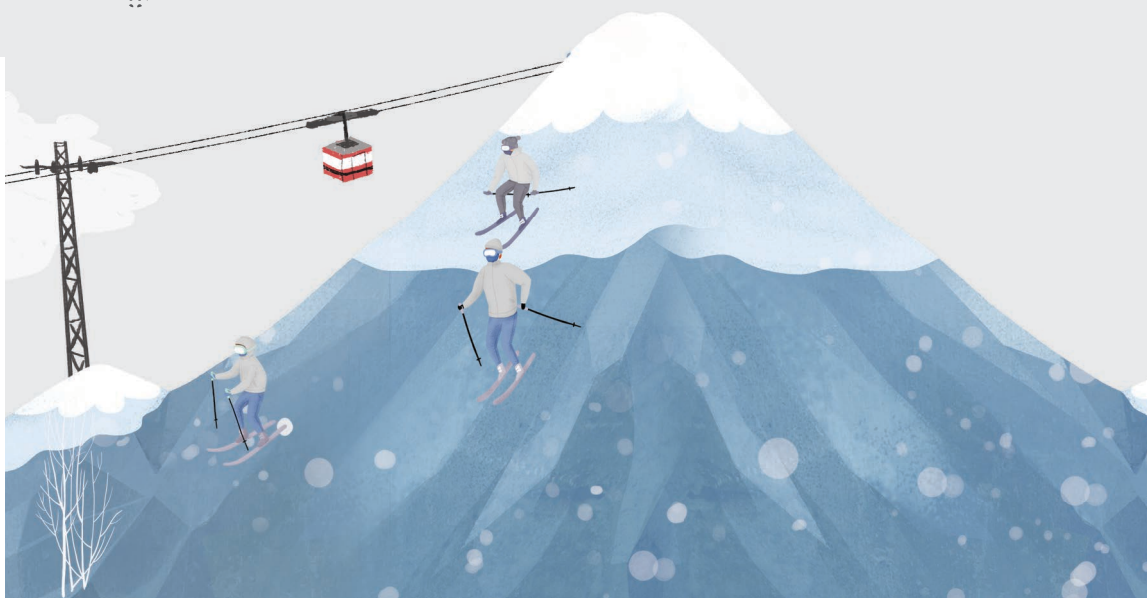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추천해주세요.

독자 여러분이 자랑하고픈 곳이 있으신가요? <The-K 매거진>에 자신이 근무하는 곳, 살고 있는 곳 주변의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추천해주세요.

숨은 맛집, 가고픈 카페, 그윽한 풍경, 떠들썩한 유흥지, 머물고픈 공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성함, 연락처, 추천 장소와 이유를 간략히 작성해 보내주시면 선정된 분께 <The-K 매거진>이 원고 의뢰를 연락드립니다. 원고 게재 시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Farm

Ⓐ 대관령 양떼목장

목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둘러보기에 가벼운 능선 등반 정도의 느낌을 준다. 올라가는 곳곳마다 양이 가득해서 양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장료에는 건초먹이 주기 체험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가을 방문을 추천한다.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483-32

Ⓑ 대관령 하늘목장

약 1000만m²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하늘목장은 '정말 광활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목장이 넓은 만큼 트랙터마차를 운행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트랙터마차를 이용하려면 입장료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458-23

Ⓒ 대관령 삼양목장

600여 만평의 넓고 아름다운 풍경이 인상적인 곳이다. 그래서인지 영화 ·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목장마트에서 삼양식품의 다양한 라면, 스낵 및 유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구경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708-9

Resort

Ⓓ 용평리조트

동계올림픽 경기장이기도 한 용평리조트는 스키뿐 아니라 워터파크, 스파 등 사계절 즐길 거리가 많은 리조트다. 특히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언제 봐도 탄성을 지르게 한다.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곤돌라를 이용할 수 없으니 방문 시 참고하길 바란다.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Restaurant

Ⓔ 황태회관

겨울 바람이 매서운 대관령에서는 한우와 함께 황태 또한 유명하다. 황태회관은 식당 규모가 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에 좋고, 가격에 비해 다양한 황태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대관령면 눈마을길 19

Ⓕ 진태원

'대관령 맛집'을 검색하면 Top 3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한 중국집. 부추 · 양파 · 배추가 생으로 가득 올려져 나오는 탕수육이 유명하다. 재료가 소진되면 그 즉시 문을 닫으니 맛보고 싶은 사람들은 미리 방문하여 이름을 적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대관령면 횡계길 19

Cafe

Ⓖ Cafe 15 by

진태원 바로 옆 건물 2층에 위치한 카페. 귀여운 강아지 '널리'가 함께 하고 있다. 위치가 위치인 만큼 진태원 대기 손님으로 주말에는 붐비는 편이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들려볼 만하다.

대관령면 횡계길 15

Ⓗ Tea Factory

사람들이 대관령에서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 가는 길목에 있는 카페는 아니지만, 여유롭고 예쁜 곳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방문해볼만한 곳이다. 예쁜 다기 세트와 실내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대관령면 차항길 162-11

The-K와 함께 떠나는 1월 문화가 있는 날

MUSIC

우아하고 흥겨운
2018년 새해맞이 신년 음악회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Vienna Waltz Orchestra)

새해,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과 월드 발레 스타들이 펼치는 '비엔나로 떠나는 왈츠 여행'이 시작된다. 1990년 지휘자 산드로 쿠트렐로가 설립한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는 비엔나 전통 왈츠, 포크댄스 그리고 오페레타 아리아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선보인다. 올해는 '왈츠의 왕'이라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곡을 주요 레퍼토리로 구성했으며, 이 밖에도 프란츠 레하르, 엠머리히 칼만, 요제프 란너 등의 곡을 연주해 새해에 희망과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 **일시** 2018년 1월 22일(월) 오후 8시
- **장소** 롯데콘서트홀
- **관람료** R석 12만원/S석 9만원/A석 6만원/B석 4만원/C석 3만원
- **프로그램**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곡을 주요 레퍼토리로 구성
  *연주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1661-1605

EXHIBITION

관능적인 색채와 직관에 충실한
독특한 화풍의 소유자

마리 로랑생 색채의 황홀

황홀한 색채로 파리 여성들을 화폭에 담아낸 프랑스 여성 화가 마리 로랑생의 작품이 국내 최초로 전시된다. 피카소, 샤넬, 콕토, 카뮈 등 수많은 예술가와의 교류로 당시 프랑스 파리 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예술가의 예술가'로 호평을 받은 마리 로랑생. 그녀의 작품은 100여 년 전 그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여전히 미묘하며 신비롭다. 무명 여성 화가가 당대에 가장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되기까지 사랑과 배신, 환희와 슬픔의 변주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을 느낄 수 있다.

- **일시** 2018년 3월 11일(일)까지
  오전 11시~오후 7시(입장 마감 오후 6시)
-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1~2전시실
- **관람료** 성인 1만3천원/청소년(만 13~18세) 1만원/어린이(만 7~12세) 8천원/유아(만 4~6세) 6천원
- **프로그램**
  - Section 1. 벨에포크 시대로의 초대
  - Section 2. 청춘시대
  - Section 3. 열애시대
  - Section 4. 망명시대
  - Section 5. 열광의 시대
  - Section 6. 콜라보레이션
  - Section 7. 성숙의 시대
  - Section 8. 밤의 수첩
- **문의** 02-396-3588

LECTURE

우리 역사와 문화 예술의
知的 탐구 시간

국립중앙박물관회 2018년 42기 특설 강좌

국립중앙박물관회 특설 강좌 신청 기간이 2018년 1월 10일부터 시작된다. 41년 동안 우리 역사와 문화 예술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앞장서온 국립중앙박물관의 특설 강좌를 통해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 미술사학, 박물관학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분야별 석학에게 배울 수 있다. 박물관학예연구사가 직접 설명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교육, 전국의 산재된 문화재를 찾아가는 고적답사 등도 함께한다. 시대별 문화 예술을 비롯해 고대인들의 흔적을 좇는 인문학까지, 흥미로운 해석과 명쾌한 분석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시간을 선물한다.

- **일시** 2018년 3월~12월(매주 1회, 오후 1시~5시)
- **신청 기간** 2018년 1월 10일(수)부터 현장 또는 홈페이지(www.fnmk.org) 선착순 접수 (화·목요일, 각 200명 모집)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 **참가비** 57만원(1년 과정)
- **프로그램**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미술사, 불교미술, 사상사, 과학사, 전시실 교육 및 고적 답사
- **문의** 02-2077-9790~3

THEATER

음악극으로 만나는 언어의 마술사
셰익스피어의 낭만 희극

한여름 밤의 꿈

<한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낭만 희극으로 그의 작품 중 가장 환상적이고 몽환적이다. 환상과 현실의 공간을 넘나들며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를 언어의 마술사답게 탁월한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사랑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 사랑을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속성이라고 말하는 셰익스피어식 사랑의 본질과 우리 시대의 사랑을 비교해봐도 좋다. 원작이 지닌 언어의 묘미를 손상하지 않고, 음악과 안무를 더해 가족 음악극으로 선보이는 만큼 즐거움을 더한다.

- **일시** 2018년 1월 5일(금)~1월 28일(일) 화~목요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5시, 일요일 오후 2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관람료** R석 4만원/S석 3만원/A석 2만원
- **프로그램** 프로그램 연인들의 사랑과 고난, 갈등을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 해결하는 꿈같은 이야기
- **문의** 02-399-1000

글 **최지만** (부천 석천초 교사)

펀드, 이름만 잘 봐도 손실 확률 줄어

어느 정도 투자 마인드를 갖추고 평소 기업 분석이나 재무제표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비용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직접투자야말로 최적의 투자 상품이다. 문제는 연구와 노력, 준비 없이 단기간 손쉽게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는 욕심이다. 원금이 손실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소 수수료를 주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간접투자가 직접투자보다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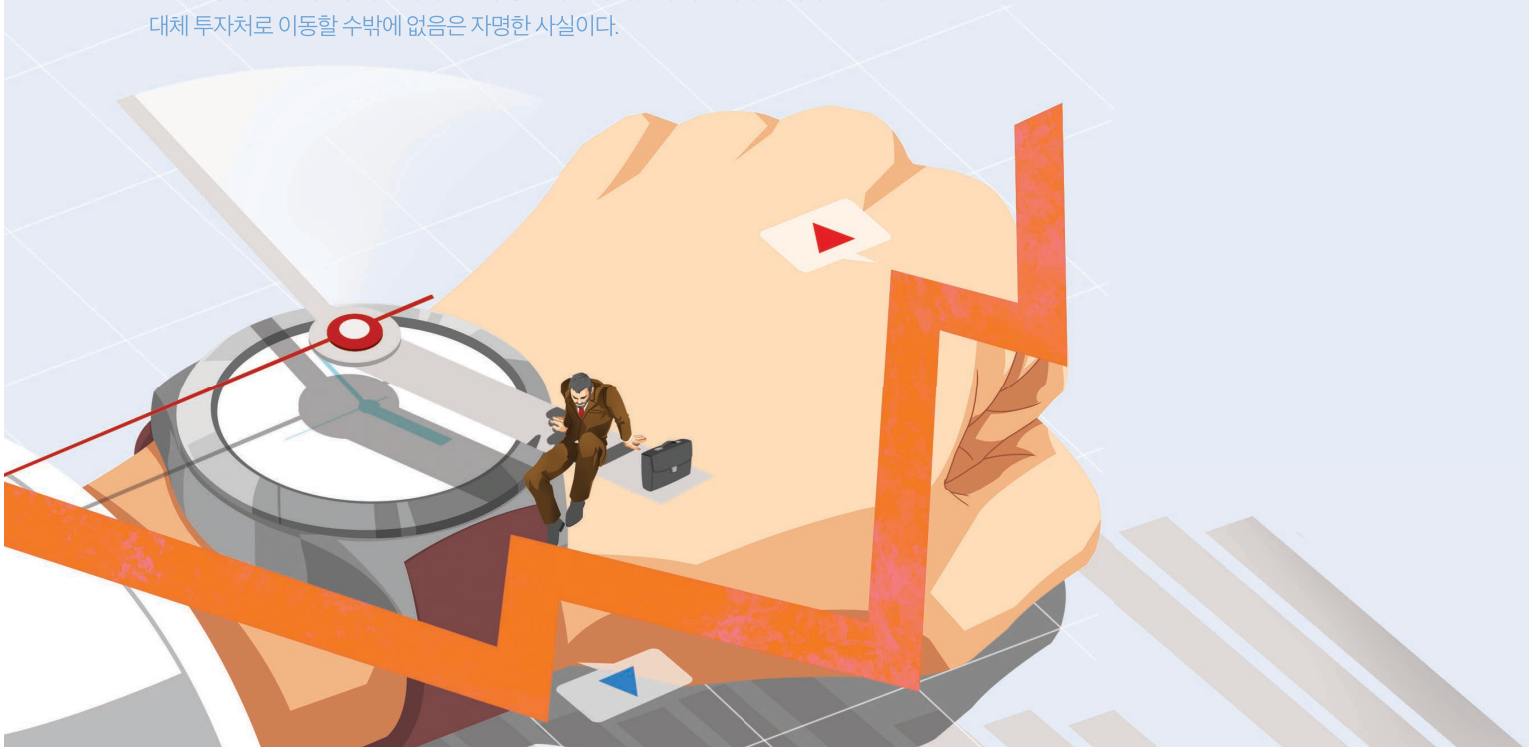
펀드 투자 시 자신이 투자한 상품의 이름도 모른 채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을 무조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펀드의 종류도 다양하고 투자 주체와 수수료, 투자 대상을 모두 고려한다면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만 한다. 펀드 이름만 자세히 살펴보고 투자하더라도 손실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맨 먼저 펀드 명에는 미래에셋, 삼성, 한화 등 운용사 이름이 나온다. 펀드를 운용하는 이들 회사는 다양할뿐더러 그에 따른 수익률 차이도 크다. 어느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높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마다 비슷한 상품은 존재한다. 결국 운영사와 소속된 펀드 매니저의 실력이 수익률을 크게 좌우한다.

둘째로 고배당, 퇴직 플랜, 연금 등 펀드의 투자 전략이나 상품의 세제 특성이 붙는다. 다음은 베트남, 중국, 일본 등 투자 지역이 나오고 이어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등 어느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명시한다. 우리나라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펀드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에 붙는 투자신탁은 법정 소속으로 회사형이나 신탁형 모두 가능하지만 대개 신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요한 것은 괄호 안에 표기된 주식형·채권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인데 주식형과 채권형은 각각 주식과 채권에 60% 이상씩 투자하는 펀드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주식형으로, 안정적인 투자자는 채권형으로 투자전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2018년, 간접투자(펀드)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물가 상승에 대비한 추가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1.50%로 올렸다.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규제와 대출 기준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금리인상에 따른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부동산에 쏠리던 투자 자금이 주식이나 펀드 등 대체 투자처로 이동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략을 수립할 수 있다. 가끔 숫자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펀드의 규모가 커지면서 같은 종류로 운용되는 펀드를 또 만든 경우다.

마지막 알파벳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간접투자 시 비싼 수수료로 인해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 많다. A 클래스는 선취수수료를 받고, B는 후취수수료를 받는다. C는 선취 및 후취 판매수수료 없이 판매보수만 받는다. S는 펀드 슈퍼마켓을 통해 가입한 펀드이고, E는 인터넷 펀드다. 참고로 P는 연금저축펀드, T는 소득공제장기펀드를 나타낸다.

A·B클래스도 보수는 지불하지만 C클래스에 비해 저렴하다. 그래서 장기투자는 판매보수가 낮은 A클래스가 유리하고, 단기투자는 판매보수는 높지만 판매수수료가 없는 C클래스가 유리하다. 은행 예·적금도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가산 금리를 적용받듯이, 펀드도 인터넷 상품이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저렴하다.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도 꼭 체크해야 한다. 보통 환매수수료는 3개월 이내 환매 시 부과되나 일부 펀드는 10년 동안 부과되기도 한다.

ETF, 인덱스 펀드와 주식의 장점 결합해

펀드는 운용 면에서 국내와 해외 펀드가 있고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이 존재한다. 또 펀드 매니저가 특정 주식을 선별해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Mutual Fund)와 코스피, 다우지수 등 단순히 지수만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Index Fund) 그리고 인덱스 펀드와 비슷하지만 자유롭게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Exchange-traded Fund, ETF)가 있다. 뮤추얼 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보수와 수수료가 비싸고, 인덱스 펀드나 ETF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지수에 의한 평균수익률을 추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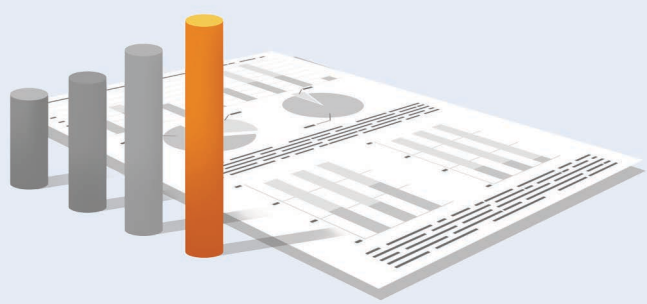
다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액티브 펀드인 뮤추얼 펀드의 대부분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인덱스 펀드나 ETF 수익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펀드를 고를 때 온라인을 통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펀드를 고르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는 비결이라고 조언한다.

요즘 상장지수 펀드인 ETF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유사하지만 실시간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코덱스, 타이거,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ETF는 기업과 업종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 분석 투자가 아닌 국가, 코스피200, 반도체와 은행 등 섹터지수, 해외지수, 레버리지, 원자재 등 비슷한 업종 전체에 투자한다. 경기 흐름만 잘 파악하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기존 펀드는 수수료가 2% 내외로 높은 반면 ETF는 평균 0.15% 내외로 매우 저렴하다. 적은 돈으로 주식처럼 직접 매매할 수 있어 간편하고,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0.3%의 거래세도 없다.

안정적인 저축 · 연금이 대안일 수도

은행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원하지만 주식이나 펀드의 투자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만 있다면 변액보험도 대안이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결정된다. 10년 이상 투자하면 장기복리 투자수익률에 더불어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비과세 한도는 월납 150만원, 일시납으로는 1억원까지다. 단점은 초기에 사업비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은 만큼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1년 미만 해약 시 보험료의 절반 정도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주식형, 채권형에 따른 차이와 보험회사 간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커서 사전 정보 없이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직접투자는 리스크가 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만큼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간접투자는 전문가에게 맡기며 마음 편히 투자하면 되지만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많다. 펀드를 운영해주는 대가로 얼마를 받는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세세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우선이다. 높은 수익률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섣부른 투기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같은 저축 및 연금 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최지만
부천 석천초 교사. 개인 투자가로 KBS <아침마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모광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15~2016년 <한국교육신문>에 경제 칼럼을 기고하였다. 국무총리·교육부장관·경기도지사·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글 박향아 사진 황원

제4회 행복나눔콘서트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특별한 하루

12월 3일 The-K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The-K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최하는 '제4회 행복나눔콘서트'가 열렸다. 따뜻한 나눔과 아름다운 음악, 행복한 웃음이 함께한 축제의 현장. 2017년의 마지막 길목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초대된 주인공

매년 12월이 되면 괜히 마음이 설렌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빨간 구세군의 종소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준다. 행복과 나눔이 함께하는 12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특별한 하루를 준비했다.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행복나눔콘서트'가 열리는 The-K호텔서울 그랜드볼룸. 따뜻한 커피와 쿠키는 공연에 초대된 650여 명 회원과 동반인을

위한 작은 선물이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포토월에서 사진도 찍으며 축제의 현장을 만끽하는 회원들 사이, 유난히 다정해 보이는 한 커플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이 올해 수능시험을 봤어요. 오늘 콘서트는 그동안 고생한 아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죠.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이 모두 교사라서 다 같이 신청했는데, 저만 추가로 당첨이 됐어요. 행복나눔콘서트의 인기를 실감했죠.(웃음)"

우영주(서울 선일여고) 회원의 얘기처럼 올해 열린 제4회 행복나눔콘서트에 대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단 7일 동안 총 3579명이 신청했으니, 이날 콘서트에 초대된 이들은 무려 5.5:1의 경쟁률을 통과한 행운아들이다.

우영주 회원의 아들 안정훈 군 역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초대된 만큼 엄마와 함께 맘껏 이 시간을 즐기겠다"라면서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준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일찌감치 공연장 안에 자리를 잡은 김계형(용인 성복초) 회원과 딸 보민 양은 공연 팸플릿을 보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었다. 보민 양은 마마무와 볼빨간사춘기의 무대가, 김계형 씨는 가수 노사연의 무대가 가장 기대된다고. 음악적 취향은 달라도 '오늘 콘서트가 서로에게 멋진 추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다르지 않았다.

우아함과 유쾌함이 공존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어느덧 넓은 공연장이 회원들로 가득 차고, 사회자 이재용 아나운서가 행복나눔콘서트의 시작을 알렸다. 첫 무대의 주인공은 노래로 행복을 전하는 가수 노사연. "화면보다 예쁜 실물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는 센스 만점의 첫인사에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노사연 씨의 노래 '만남'을 다 함께 따라 부르는 관객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가요'의 위상을 실감했다.

이어진 무대는 모스틀리오케스트라+소프라노 김수연, 테너 박지민, 바리톤 박정민의 멋진 협연. 공간을 가득 메운 오케스트라의 선율에 천상의 목소리가 더해지니 이보다 완벽한 무대가 있을까 싶었다. 오케스트라의 캐럴 연주에는 크리스마스의 낭만이 담겨 있고, 3명의 성악가가 부르는 뮤지컬 넘버는 한 편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떠올리게 했다.

귓가를 울리는 멋진 목소리에는 절로 감탄이 나오고, 적재적소에 이어지는 위트 넘치는 멘트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클래식 공연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눈과 귀,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느낌이었다. 클래식의 매력에 푹 빠진 김은정(남양주 도곡초) 회원은 오늘 들은 곡을 열심히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꼭 다시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한다. 김은정 씨와 동행한 박미영(남양주 판곡

초) 회원 역시 “무척 즐거운 공연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2017년의 마지막, 즐거운 추억을 선사해준 동기 은정 씨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나눔이 주는 행복 ‘The-K행복기부금 전달식’

우아함과 유쾌함이 공존한 무대 후에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이어졌다. 2017년 한 해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 The-K 행복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The-K행복기부금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최하는 The-K행복서비스 문화복지 행사에 초청된 회원들의 참가비로 운영된다. 교직원공제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성금을 전달하고, 임직원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2014년부터는 전국 교육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기 위해 The-K행복기부금을 조성했다.

올해는 매직콘서트, 파크콘서트, 한여름밤의 클래식 산책 등 The-K행복서비스 문화복지 행사를 통해 모인 약 1억1800만원에 한국교직원공제회 사회공헌비 약 5500만원을 더해 총 1억7300만원 남짓의 기금을 모았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사단법인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협회, 사단법인 국제키비탄한국본부, 엘피스의 집에 전달됐다.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기금이 전해지는 순간, 행사장 안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신나는 공연과 따뜻한 나눔이 함께한 축제의 장

나눔으로 훈훈해진 공간을 한층 뜨겁게 달굴 2부 공연의 문을 연 주인공은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었다. 초대 가수 중 유일하게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인 ‘수요일밴드’ 박대현, 이가현 두 현직 초등

학교 교사가 무대에 오르자 회원들의 표정에서 막연한 반가움이 묻어났다. 시끌벅적 교실 안 이야기를 재미있는 가사와 예쁜 멜로디로 노래하는 수요일밴드. 두 사람이 직접 만들고 부르는 노랫말에는 교사들의 고민과 어려움, 아이들로 인해 느끼는 행복,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동료 교사들이 부르는 우리의 이야기는 그대로 마음에 내려앉았다.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교실 안 이야기. 재미있는 가사 속에 담긴 진심에 웃음과 감동이 교차했다.

톡톡 튀는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볼빨간 사춘기의 멋진 공연에 이어 마마무가 선사하는 화려한 퍼포먼스는 공연장의 열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부모님과 함께 온 학생들의 열띤 응원과 함성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부모님들도 어느새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기 시작했다.

엔딩 무대의 주인공은 노래 잘하는 '미남 가수' 김범수. 넋 놓고 감상할 수밖에 없는 명품 발라드 무대를 시작으로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무대가 이어졌다. 'DJ DOC와 춤을', '여행을 떠나요'로 이어지는 댄스 메들리는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 능숙하게 리듬을 타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게 만드는 최고의 무대였다. 신나는 음악과 멋진 공연, 나눔의 행복이 함께한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행복나눔콘서트'.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특별했던 하루가 저물어갔다.

INTERVIEW

최정희(서울 서이초 교사), **이기승 님**

서로에게 반해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어 함께 걸어온 지 벌써 35년째입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다시 둘 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함께 공연도 보고 극장에도 가고…. 오늘 콘서트는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서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의 행복한 시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나눔으로 전해진다니 더 기쁘네요. 2017년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나눔콘서트는 둘이 아닌 셋이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뱃속에 뽀미(태명)가 있거든요.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데이트를 못했어요. 연애 시절에는 종종 뮤지컬이나 공연을 보러 가곤 했는데, 오늘의 공연이 단연코 최고였습니다. 공연을 보는 내내 무척 행복했어요. 우리 뽀미도 신이 났는지 엄마 뱃속에서 열심히 놀더라고요.(웃음) 엄마가 행복하면 뱃속 아기도 행복하다잖아요. 오늘 최고의 태교를 한 것 같습니다.

문진민, 박솔비(동탄 중앙초 교사) **님**

박대현·이가현 교사(수요일밴드)

프로 뮤지션들과 한 무대에 서게 된다는 생각에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아이들이 외쳐준 '파이팅' 소리를 애써 떠올렸죠. 서울로 공연하러 간다고, 유명한 가수들과 같은 무대에 선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최고"라고 응원해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관객 여러분과 수요일밴드는 한편이잖아요. 우리 노래에 충분히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수요일밴드의 무대를 통해 행복한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정수희 사진 The-K호텔경주, 경주시청

겨울에 즐기는 낭만,
온천을 맛보다

The-K Hotel GYEONGJU

여행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출사 여행을 떠난 이들에겐 더하다. 카메라 하나 둘러메고 살이 에일 듯한 세찬 바람, 눈보라 속 추위를 견딘다. 얼음장처럼 얼어있는 몸을 녹이기엔 온천만한 것이 없다. 뜨끈한 물에 몸을 뉘이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 겨울 여행의 참맛은 여기에 있다.

눈 내리는 겨울, 스파월드에서 즐기는 온천욕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자리한 The-K호텔경주. 연간 34만명이 다녀갈 만큼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 The-K호텔경주 스파월드의 온천수는 지하 630m에서 용출되는 100% 천연온천수를 사용한다. 이는 혈액순환, 류머티즘, 신경통, 근육통, 요통, 피부병 및 외상 휴유증, 피부미용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특히 야외노천탕은 온천욕의 백미.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실외에서 즐기는 온천의 매력이란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The-K호텔경주 스파월드의 야외노천탕은 우거진 자연 숲속에 있어 운치를 더한다. 삼림욕, 일광욕, 풍욕 등을 즐길 수 있어 풍류를 맛보는 재미가 쏠쏠해 휴식과 건강의 완벽한 어울림을 선물한다.

바테풀은 야외노천탕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 기류를 통해 목을 비롯해 어깨와 등을 마사지할 수 있는 넥샤워가 가장 인기다. 물의 부력을 통해 물속을 걸어 다니며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보행욕, 수증기포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기포욕, 편안한 자세로 서서 이용하는

전신마사지 등을 즐기다보면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릴 것이다. 사우나(핀란드, 황토, 습식)에서는 노폐물 배출, 피로 회복의 효과를 느낄 수 있으니 꼭 경험해 보길 바란다.

고객의 편안함을 위한 탈바꿈

The-K호텔경주 온천시설은 최근 고객의 니즈와 시대적 환경의 변화를 따랐다. 2016년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며 사우나 내부 및 탕 바닥 교체 등으로 보다 쾌적한 시설을 갖췄다.

깨끗하고 신선한 실내공기를 유지시키기 위해 최첨단 환기순환식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락카, 신발장, 사물함 등 전면 교체와 더불어 전자제어 Key 시스템을 설치했다. 고객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더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힘쓴 것이다.

공제회원을 위한 '온천 패키지'

유적 관광 및 출사, 온천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겨울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The-K호텔경주의 '온천 패키지'를 추천한다.

The-K호텔경주는 공제회원을 위한 감사와 성원의 의미로 1월부터 2월까지 온천 패키지를 판매한다. 객실 1박과 조식 2인, 사우나 2인 패키지는 요일에 따라 12만7000원 ~ 18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요일별 46%~50% 할인율을 적용해 더욱 저렴한 이용도 가능하다.

정성 어린 제철 음식으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겨울철 특선메뉴도 선보인다. 무궁화 한식당은 해물순두부와 연어구이, 한우육회돌솥비빔밥, 한방꼬리곰탕, 얼큰한 갈비 육개장 등을 준비했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경주로 낭만적인 겨울 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The-K호텔경주 스파월드의 온천수는 지하 630m에서 용출되는 100% 천연온천수를 사용한다. 이는 혈액순환, 류머티즘, 신경통, 근육통, 요통, 피부병 및 외상 휴유증, 피부미용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The-K호텔경주
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45
054-745-8100
thek-hotel.co.kr

The-K호텔경주 시설 안내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한 The-K 호텔경주는 최대 2000명 수용이 가능한 컨벤션홀과 함께 다양한 크기의 중·소 연회장, 304실의 객실, 예식홀, 약 600대 주차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가족 모임부터 각종 행사를 위한 최적의 장소다.

경주 겨울 출사 여행

추천 출사지

삼릉숲

경북 경주시 배동

신라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능과 개울 건너 55대 경애왕릉을 둘러싸고 있는 송림으로 제멋대로 휘어진 소나무가 빼곡하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면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운 숲을 볼 수 있다.

송대말등대

경북 경주시 감포읍 척사길 18-94

감포항 인근 해역으로 신라 문무왕을 은혜를 기리는 의미를 지닌 감은사지 3층 석탑을 형상화한 등대를 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지정된 곳으로 푸른 동해바다를 지키는 등대와 수많은 갯바위와 잘 어우러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주상절리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지정된 곳. 제주의 주상절리와 달리 부채꼴 주상절리를 비롯해 주름치마, 꽃봉오리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약 1.7㎞에 걸쳐 몽돌길, 야생화길, 등대길 등 주상절리 전 구간을 산책할 수 있는 파도소리길이 조성돼 있다.

공제회 2018년 총자산 35조원 전망… 제106회 대의원회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1월 27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제106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도 기본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 총자산은 3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17년 말 추정 자산 32조4천억원 대비 2조6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자 증가, 자산운용으로 인한 안정적 수익 실현 등으로 당분간 자산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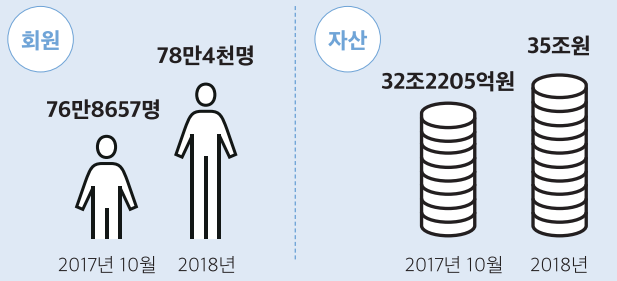
2018년 자산 배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해외투자 자산이다. 10조9557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외투자 부문에서 거두는 높은 수익률과 투자처 다변화 추세에 따른 것이다. 2018년 총수익 목표는 1조5185억원이며, 구체적으로 ▶금융투자 3255억원 ▶대체투자 3741억원 ▶해외투자 4481억원 등으로 설정했다.

2018년 지출예산 중 전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부분은 회원복지비로, 34억7700만원 늘어난 150억300만원이 편성됐다. 2017년 실시한 문화복지서비스 'The-K행복서비스'는 총 27만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18년에는 회원 호응도가 높았던 행사 위주로 The-K행복서비스를 재편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비도 7억1400만원 증액됐다.

문용린 이사장은 "회원의 성원 속에 함께 노력한 결과 '제4회 한국기금·자산운용 대상' 공제회 부문 최우수상, '한국의 경영대상' 지속가능 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며 "2018년 3월 신축회관 이전을 앞두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제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아낌없는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의원회=교직원공제회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공제회 최고 의결기구다. 17개 시·도별로 일반회원 78명, 특별회원 4명의 총 82명으로 구성되며, 정관 변경,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심의, 결산보고, 기타 공제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을 의결한다. 2017년 11월 1일자로 제21대 대의원회가 출범했다.

2018년 교직원공제회 목표



공제회 참나눔봉사단 김장나눔 · 연탄배달 봉사

연말을 맞아 한국교직원공제회 참나눔봉사단의 따뜻한 행보가 이어졌다. 우선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지난 12월 6일 공제회 임직원 50여 명은 서울 여의도 자매근린공원에서 여의동주민센터, 여의동자원봉사연합회와 함께 배추 2400여 포기의 김치를 담가 영등포구 내 저소득 · 다문화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163곳에 전달했다. 이어 12일에는 임직원 60여 명이 서울 하월곡동 일대의 독거노인과 불우이웃 등 소외계층에게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공제회는 2009년부터 참나눔봉사단을 구성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왔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무료급식 봉사, 헌혈, 요양시설 위문 등 10여회의 활동을 펼쳤다.

포항 지진피해 구호성금 전달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지난 11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2000만원의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구호성금은 교직원공제회 임직원 러브펀드로 조성한 금액 1000만원에 사회공헌 예산 1000만원을 더했다. 교직원공제회 러브펀드는 매달 임직원의 급여에서 자투리 금액을 더해 모으고 있다.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 ·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2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고객만족경영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소비자의 날 기념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소비자 권익 향상에 노력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2012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을 도입하며 '회원중심경영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 CCM 인증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서비스 고도화에 힘쓴 결과 2014년 재인증과 2016년 3차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2월 5일에는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7 한국의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의 경영대상은 혁신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대내외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속가능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회원과 신뢰를 구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고자 노력해온 공제회는 이번 한국의 경영대상 심사에서 경영성과,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추진체계, 리더십 등의 서류·현지·종합심사를 거쳐 리더십과 경영성과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The-K 매거진이 지난 12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창간사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잡지협회 · 한국PR협회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1991년 한국사보대상으로 시작, 기관 · 기업 · 단체 등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과 비즈니스 저널리즘 관련 매체를 대상으로 기업문화 발전과 관련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 2017년 9월 창간한 The-K 매거진은 이번 수상에서 교직원 라이프에 기반을 둔 친근하고 밀도 높은 콘텐츠와 구성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MZ 안보관광 · 뮤지컬 관람 … 회원초청행사 풍성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1월 29일과 12월 1일 양일간 특별회원 250여 명을 초청해 The-K 은빛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역에서 평화열차 DMZ 트레인을 타고 강원 철원 일대의 노동당사, 멸공OP,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을 둘러보는 안보관광 여행으로 진행됐다.

한편, 12월 15일 부산에서는 The-K 행복서비스 행사가 펼쳐졌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 오른 뮤지컬 레베카 공연의 전관을 빌려, 회원 600여 명을 초청한 것이다. 교직원공제회는 2018년 보다 증액된 예산으로, 그동안 호응이 높았던 프로그램 위주로 재편해 다양한 회원 문화복지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2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작품 공모

제2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의 출품작을 1월 26일까지 공모한다.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은 교직원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해 첫 선을 보여 회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1회 행사와 마찬가지로 응모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작품이 전시된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작품사진·작가사진과 함께 웹하드(www.webhard.co.kr)에 업로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018년 2월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발표 예정이다. 선정된 회원은 작품 접수(반입) 기간에 출품 작품 제출해야 한다. 제2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은 3월 23일~4월 1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전화 **1577-3400**

The-K손해보험, 레이디플러스 건강보험 출시

The-K손해보험이 2017년 말 출시한 여성특화 건강보험 '무배당 레이디플러스 건강보험'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여성에게 발생확률이 높은 5대 질환(성대결절·하지정맥류·족저근막염·내향성손발톱·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 및 수술비를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특약 가입 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14개 질병을 포함해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만성질병, 여기에 부인과질병에 대한 입원일당 및 수술비까지 폭넓게 보장된다.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 보험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는 표준형과 동일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80·90·100세 만기이며, 납입기간은 10~30년(5년 단위)이다. 전화 **1566-8551**

'The-K호텔'과 함께하는 겨울나기

The-K설악산가족호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준비기간(1월 28일~2월 26일) 동안 시설 제공 업체로 선정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 지원에 나선다.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대회 및 준비기간을 포함해 30일 동안 숙박하며, 경기장까지 셔틀버스도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한다. 대회 기간 중에도 잔여 객실 예약이 가능하다. 공제회원은 ▶20평 6만원~8만5000원 ▶29평 9만2000원~12만5000원 ▶47평 12만원~18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알파카월드와 제휴해 숙박 회원에게 입장료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홍천에 위치한 알파카월드는 11만평 규모의 체험형 동물원이다.

전화 **033-639-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연중 축제로 가득한 전라도를 방문하는 나들이객에게 추천할 만한 숙소다. 특히 2월 11일까지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가 전북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허브밸리 및 바래봉 일원에서 개최돼 눈썰매, 바래봉 눈꽃등반대회, 눈조각 조형물전시, 각종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투숙객에게 눈썰매장 할인권을 제공하며,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히 풀어줄 수 있는 게르마늄 온천탕도 운영한다.

전화 **061-783-8100**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2018년 2월 28일까지 '건강한 겨울나기, 맛있는 제주 패키지'를 판매한다. 이번 패키지는 객실 1박과 함께 신간 웹툰 '올드독의 맛있는 제주일기' 1권을 증정하며,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제주 향토 음식인 '통전복 게우 돌솥밥 정식'과 '해물 전복뚝배기 정식'이 석식으로 제공된다. 공제회원은 주중·주말 모두 14만원에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 **064-729-8100**

The-K호텔서울

도심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윈터 패키지'를 2월 28일까지 선보인다. ▶패키지 A는 객실 1박, 우첼로 조식 뷔페 2인 식사 15만원 ▶패키지 B는 객실 1박, 더파크 저녁 뷔페 2인 18만원 ▶패키지 C는 객실 1박,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2인 12만9000원이다. 모든 가격은 공제회원가. 패키지 이용 고객은 호텔 내 우첼로·더케이델리·더파크의 식음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설 연휴를 맞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고객에게는 식음료를 20% 특별 할인해준다.

전화 **02-571-8100**

응모 즉시 선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1월 즉석 당첨 이벤트

당첨인원 x2

이벤트 기간 1월 1일~31일

응모하는 족족 '꽝'이어서 섭섭하셨죠?

나만 빼고 다 당첨되는 것 같아 서운하셨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OOPS!

이번에는 2배니까 당첨될 수 있을… 하하하하 그래도 당첨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00매 CU 상품권 5천원권 (모바일)

CU모바일상품권 5천원권

500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기프티콘

참여 방법 상단의 QR코드를 찍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1월 즉석 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성별과 연령을 체크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기재 또는 미기입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2월 중순 발송 예정)

QR코드를 스캔하여 지금 바로 당첨 확인하세요!

The-K INFORMATION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회원들의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위하여 저축·보험·대여 등 각종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8개 출자회사(호텔·손해보험·실버타운·상조·저축은행·골프장·복지포탈) 및 다양한 생활·문화 서비스를 통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서비스

교육가족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고품격 문화복지행사

※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문화·예술**
  문화쉼터 樂
  (뮤지컬·콘서트 초청)
- **도서**
  북&JOY
  (도서증정·저자강연)
- **스포츠**
  스포츠&JOY
  (프로스포츠 관람)
- **영화**
  씨네&JOY
  (영화예매권 증정)
- **취미·여가**
  컬쳐·에듀&JOY
  (체험이벤트)
  The-K 은빛동행
  (퇴직회원 문화활동)

회원수
76 만 명

자산
32 조 원

복지혜택

회원의 생애주기별 지급하는
다양한 부조와 기념품

예약 및 상담

숙박시설

교직원공제회 출자호텔(회원 할인)

The-K호텔 서울 02-517-8100 | The-K호텔 경주 054-754-8100 | The-K지리산가족호텔 061-783-8100

The-K설악산가족호텔 033-639-8100 |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064-729-8100

대명·한화리조트(법인회원권 이용)

전국 대명·한화리조트 숙박 및 시설 할인

예약 : 교직원나라(teachiworld.com) | 문의 : 1577-1382

레저·생활

소피아그린 CC(골프장) 031-887-8100

The-K서드에이지(실버타운) 055-530-8100

The-K손해보험 1566-3000 | The-K저축은행 02-569-5600 | The-예다함상조 1566-6644

티처월(교직원 온라인 복지사이트) teachiworld.com | 1577-1382

S2B(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kr | 1577-3309

B2B(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teachiworld.com | 1566-5626

무료 세무상담(세무사)

서울 송영주 02-3473-3401 | 인천 유명석 032-864-9922

대전 주우성 042-253-6901 | 광주 김영빈 062-371-9611

대구 안중동 053-654-8433 | 부산 유명석 051-611-1125

무료 세무상담(변호사)

서울 이규철 02-3016-35335 | 유수왕 02-2051-8881

김병직 02-592-7456

부산 이재호 051-506-7381 | 대구 박경환 053-751-6637

인천 박준범 032-866-5660 | 광주 이기연 062-226-6755

대전 곽노준 042-369-6900 | 울산 이상구 052-272-6000

경기 이영직 031-386-0100 | 강원 유지한 033-255-5601

충북 윤경식 043-292-8008 | 전북 김대호 063-275-0006

경남 김상군 055-266-4747 | 제주 나인수 064-726-6605

회원예식장 (예식장·폐백시설 무료 이용)

전국 7개 교직원공제회관 예식장

부산(부산역) 051-464-6767 | 대구(범어역) 053-742-5400

광주(농성역) 062-352-1331 | 대전(탄방동) 042-488-1111

경기(수원시청역) 031-224-2030

강원(춘천터미널) 033-257-2921

전북(전주 서신동) 063-253-9790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제22회 소비자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교육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모여 자랑스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대만큼, 믿음만큼 더 큰 신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